

자활사업 재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이상아·백학영·이상우·이진경·김내영·정윤수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백학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경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교수

김내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정윤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선행연구 고찰	7
1. 자활사업 재참여 관련 선행연구	9
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11
3. 빈곤동학 및 자활사업 재참여 발생의 주요 원인 관련 선행연구	15
III.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	19
1. 분석개요: 자활정보시스템 DB 분석	21
2.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23
3.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집단별 특성 비교	26
4.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종단적 특성 변화	42
5. 소결	50
IV.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자활사업 경험과 정책인식	53
1. 조사개요	55
2. 연구참여자 사례분석	60
3. 연구참여자 자활사업 재참여 경험 분석	75
4. 소결	125

V. 자활사업 재참여자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129
1. 연구결과 논의	131
2. 정책제언	134
참고문헌	141

CONTENTS

표목차

〈표 III-1〉 본 연구의 주요 변수 21

〈표 III-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구분 22

〈표 III-3〉 2016-2022 전체 자활참여자 대상 참여유형별 특성 24

〈표 III-4〉 2022년도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25

〈표 III-5〉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개인적 특성 28

〈표 III-6〉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가구 상태 29

〈표 III-7〉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건강 상태 30

〈표 III-8〉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경제적 상태 33

〈표 III-9〉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취·창업 경험 34

〈표 III-10〉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38

〈표 III-11〉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39

〈표 III-12〉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종결사유 40

〈표 III-13〉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대비 49

〈표 III-14〉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대비 49

〈표 IV-1〉 인터뷰 조사내용 56

〈표 IV-2〉 인터뷰 조사대상 유형 57

〈표 IV-3〉 연구참여자 특성 58

〈표 IV-4〉 자활사업 참여·재참여 과정 주제분석 85

〈표 IV-5〉 자활사업 참여상황과 종료 후 상황 비교 96

〈표 IV-6〉 자활사업 반복참여와 장기참여에 대한 인식 103

〈표 IV-7〉 자활유인의 한계 110

〈표 IV-8〉 자활사업 반복참여자의 취·창업 전망과 지원방향 123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방법 6

[그림 III-1]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연령 42

[그림 III-2]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수급유형 45

[그림 III-3]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47

[그림 V-1] 자활사업 재참여 GateWay 과정(안) 136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과 취약한 인적자본 및 가족 안전망, 사회보장 및 복지체제의 미성숙 등의 종합적으로 결합된 신빈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 즉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로서 실시되었다. 정책 초기에는 빈곤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였으나 현 시점에서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요인으로는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실업의 지속,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미약자 증가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 신용 문제, 불안정한 주거, 만성질환, 정신적 질환 등과 같은 다차원적 문제를 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최상미, 2021). 즉 다차원적 빈곤 문제와 자활사업에서의 탈수급의 어려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활사업은 탈수급, 탈빈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활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자활 근로소득 공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자립지원 별도보장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기존 가구원의 수급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였으며 현물(의료)급여를 분리 제공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등 자활동기 의지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워지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y)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하는 물리적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탈수급 촉진을 저해하는 동시에 복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자활사업 내부에서도 동기부여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자활사업은 빈민과 복지제도 사이를 이어주면서 빈곤 재생산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드는 연결 매체 구실이 된다는 것이다. 빈민들은 자활사업을 계기로 빈곤을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수급자로 버티는 삶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정수남, 2019; 조준용, 2020). 실제 공식적인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낮은 임금과 미래에 대한 낮은 전망으로 인해 빈곤층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루기 어렵고, 다시 복지제도로 돌아가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들도 발표된 바 있다(Edin and Lein, 1997; Seccombe, 2000). 따라서 자활사업 내 복지 의존성 문제에 대한 비판과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동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연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y)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지은정, 2007; 이영애, 2011; Bane and Ellwood, 1986; Biewen, 2014). 빈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 못해서 빈곤이 장기화되며(Bane and Ellwood, 1986), 지속 빈곤이 특정 집단에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iewen, 2014). 빈곤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소득 빈곤에서 자산 빈곤으로 악화되고, 인적자본이 마모되며 사기 저하(demoralization)와 낙인을 경험하고 사회관계도 단절되며, 자녀의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할 자원과 정보가 부족해서(Biewen, 2014) 자녀마저 장기빈곤에 처하기 쉽다는 것이다(Alcock, 2004). 따라서 자활사업 재참여자에 관한 분석은 빈곤의 동학 접근 중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 구조의 중요한 특성인 “반복빈곤(repeat poverty)”에 주목하는 동시에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자활사업 재참여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 자활정보시스템을 사용해 기존 선행연구가 특정 시점의 빈곤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발전시켜 자활참여자 ‘빈곤 재진입’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기초해 자활참여자의 빈곤 재진입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 이후 지속 가능한 탈빈곤의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 현상과 반복빈곤 및 지속빈곤 등의 빈곤동학 개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빈곤 동학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을 위하여 자활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추이(2016~2022년 월 자료)를 분석하고, 빈곤 유형별 자활사업 재참여 특성, 개인·가구·경제활동 등 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겠다.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빈곤 경험, 자활사업 재참여 이유, 인식 및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재참여자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그림 I-1] 연구방법

주요 내용		방법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빈곤 동학 관련 문헌 분석	정책자료 해외 문헌, 보고서 등
제도와 실태 분석	자활정보시스템(2016-2022) 기초 자료분석 이산기간위험모델 추정	통계자료분석 (자활정보시스템 DATA)
심층 사례 분석	자활사업 재참여자 실태조사 - 빈곤 경험, 자활사업 재참여 이유, 탈수급을 위한 정책적 요구	질적 조사
지원 방향 도출	재참여 실태 및 요인 분석 정책적 지원 방향 도출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선행연구 고찰

1. 자활사업 재참여 관련 선행연구
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3. 빈곤동학 및 자활사업 재참여 발생의 주요 원인
관련 선행연구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활사업 재참여 관련 선행연구

2000년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자활사업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자활성과 및 자활사업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최상미 외, 2017; 백학영·김경휘, 2013)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들(권민숙 외, 2012; 김자옥, 유태균, 2018; 조준용, 2013)이 있다. 또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먼저, 자활사업의 특성 측면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 초점을 두면서, 각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와 만족도,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들여다 보기도 하였고(도유희·이상록, 2013; 박주영, 2021; 김영춘, 2021), 지역자활센터의 전달체계나 사례관리 특성, 실무자의 서비스 질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도 하였다(손능수·김경휘, 2016; 백학영·김경휘, 2013; 권용신·이준상, 2011). 그리고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의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존재하였는데, 자활사업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를 분석(이석원·정희정, 2007)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비교·분석(이형하, 2015; 임진섭 외, 2011)하기도 하고, 진입단계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과정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미라 외, 2019)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측면에서는 성별(송인한 외, 2012; 송승숙·장승옥, 2013; 정혜숙, 2015)이나 연령(송인한 외, 2013; 임진섭, 2013; 김소형·김경호, 2018; 김소형·김경호, 2020)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송인한 등(2012)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성별 비교를 통해 가족지지는 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령, 부채유무는 남자에

게 우울감, 실무자 지지는 여성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중·고령층과 청·장년층을 비교하는 연구(송인한 외, 2013)도 진행하였는데 청·장년층 집단과 달리 중·고령층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고 자활 참여 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이상아 외, 2022) 청년층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김소형·김경호, 2018; 김소형·김경호, 2020)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활사업 재참여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자활사업 중도 이탈자의 특성과 이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유태균·김경휘, 2006)에서 자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들과 중단한 이들 간 비교를 통해 성별, 건강상태 등의 비경제적 요인들이 참여 지속 및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은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패널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비교적 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연구도 일부 존재하였다. 경승구·이용갑(2018)은 2013년과 2016년 실시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3년 미만의 단기참여자와 3년 이상의 장기참여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백학영·조성은(2012)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5년 후를 추적조사하여 이들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유태균·윤성원(2012)은 자활 참여 후 6~8년이 경과한 이들의 삶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의 탈수급률이 50% 이상임을 밝혀냈다. 특히, 조준용(2020)은 시간의 길이가 가장 긴 중단자료를 활용하였는데, 12년에 걸친 3개 시점의 면접 자료를 활용해 5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탈수급 이후의 삶을 수급을 반복하는 유형, 탈수급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유형, 비교적 경제적으로 양호한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이나 자활 여부에만 주목하지 않고 참여 이후의 삶을 추적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활사업 중단 또는 탈수급 이후에도 자활사업에 반복적으로 재참여하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재참여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재참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기간과 참여횟수를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분류를 위한 선행연구

1) 빈곤동학의 개념 및 분류

(1) 빈곤동학의 개념

빈곤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태적 연구와 동태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태적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빈곤의 규모와 특성 등 빈곤 실태에 관한 분석을 하는 연구인 반면, 동태적 연구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소득 등의 경제활동을 추적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빈곤에서의 탈출 등 빈곤동학(dynamics of poverty)에 관해 분석하는 연구이다. 빈곤동학은 빈곤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지속되거나 변화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빈곤의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몇 년간 빈곤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빈곤동학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빈곤동학 연구는 사람들이 언제 빈곤에 진입하고, 얼마나 빈곤 상태를 유지하며,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등 빈곤 이행(poverty transition)과 빈곤 지속기간(poverty duration) 분석을 통해 빈곤의 원인과 과정을 밝힘으로써 빈곤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 탈출을 돕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환준, 2013). 따라서 이러한 빈곤동학 연구에 따르면 비빈곤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단순히 빈곤의 탈출에만 집중하는 빈곤 정책은 계속해서 빈곤으로 재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반복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빈곤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절하시키는 정책이며,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을 전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역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Smith and Middleton, 2007).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 규모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한국복지패널(KWPS) 등이 실시되어 종단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빈곤동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빈곤 상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빈곤 이행 연구가 주로 행해졌으나(금재호·김승택, 2001; 구인회, 2002; 김교성,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이후 자료가 축적되며 빈곤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들도 실시되었다(구인회,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소득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이렇게 역동적인 빈곤 이행 상황에서도 특정 시점에서 보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구인회, 2002), 빈곤 탈피 후 다시 재빈곤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정재호, 2002).

(2) 빈곤동학의 분류

Bane과 Ellwood(1986)은 빈곤에 진입할 때부터 빈곤에서 탈피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빈곤주기(또는 구간)(poverty spell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종단자료는 필연적으로 빈곤의 시작점을 알 수 없는 좌측절단 문제와 끝점을 알 수 없는 우측절단 문제를 갖는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곤진입자와 특정시점빈곤자로 나누어 빈곤주기를 산출하고 빈곤주기를 직접 계산하기 보다 탈피확률과 지속기간의 관계를 계산하여 빈곤주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단일한 빈곤주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 문제가 무시됨으로써 빈곤·비빈곤 간의 이동성은 과대평가되고 빈곤의 장기화는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Stevens, 1994, 1999). 이에 일정 기간 동안의 빈곤 이행, 빈곤의 지속과 반복을 모두 고려한 빈곤 이력(poverty profiles)을 활용함으로써 빈곤층을 유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Ashworth et al., 1994; Fouarge and Layte, 2005; 노대명 외, 2006; 강신욱, 2009; 이병희, 2010; 이주환·김교성, 2013).

Ashworth 외(1994)는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20년 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빈곤 유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자료 내에서 빈곤구간(poverty spells)이 한 번인 경우와 두 번 이상인 경우로 나누었다. 한 번의 빈곤구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간이 1년이면 일시빈곤(transient poverty), 2년 이상이면 계속빈곤(persistent poverty), 15년 이상이면 항상빈곤(permanent poverty)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 이상의 빈곤구간을 갖는 경우에 1년짜리 구간이 반복되면 수시빈곤(occasional poverty), 1년 이상의 빈곤구간 이후 1년 이상의 비빈곤구간이 따라오는 것이 반복되면 반복빈곤(recurrent poverty), 1년 이상의 빈곤구간 이후 1년짜리 비빈곤구간이 따라오는 것이 반복되면 만성빈곤(chronic poverty)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연구가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계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Fouarge와 Layte(2005)은 5년간의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자료를 분석하여 빈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빈곤 경험이 전혀 없는 지속비빈곤(persistent non-poor), 한 번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transient poverty), 2년 이하의 빈곤을 두 번 이상 반복 경험한 반복빈곤(recurrent poor), 연속적으로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지속빈곤(persistent poor)이다. 국내에서는 이병희(2010)가 빈곤 이력에 따른 빈곤 유형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분류방식을 활용하였다.

노대명 외(2006)는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를 활용하여 빈곤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2분기의 기간 중 한 분기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빈곤무경험 집단, 연속된 한 번만 빈곤을 경험한 집단으로 6분기 이하의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 집단, 두 번 이상 빈곤을 반복 경험한 반복빈곤 집단, 7분기 이상 빈곤상태를 유지한 계속빈곤 집단이 유형화된 4개의 집단이다.

강신욱(2009)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빈곤 경험 유무와 빈곤경험 기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우선, 크게 빈곤경험이 없는 가구와 빈곤경험이 있는 가구로 나눈 후 빈곤경험이 있는 가구를 다시 빈곤 기간이 2년 이하인 가구와 3년 이상인 가구로 나누었다. 빈곤 기간이 2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빈곤구간이 1개인 경우에는 일시빈곤 가구로, 빈곤구간이 2개인 경우에는 반복빈곤 가구로 유형화하였다. 빈곤 기간이 3년 이상인 가구들은 단일 빈곤구간의 길이가 3년 이상이면 지속빈곤 가구로, 단일 빈곤구간의 길이가 2년 이하인 가구는 반복빈곤 가구로 보았다. 즉, 한 번이라도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경우에는 지속빈곤 가구로 정의된다.

이주환과 김교성(2013)은 이러한 분류를 활용하되 3년 이상의 빈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속빈곤으로 분류하여 빈곤의 지속성을 강조한 강신욱(2009)과는 달리 빈곤의 반복성에 주목하였다. 즉, 빈곤 지속기간과는 별개로 빈곤주기가 3개 이상이면 반복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빈곤주기가 2개 이하이면서 빈곤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속빈곤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긴 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빈곤의 지속성에 집중하느냐 혹은 빈곤의 반복성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반복빈곤과 지속빈곤으로 유형화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2개 이상의 빈곤구간을 경험하더라도 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긴 경우에 빈곤의 지속성에 집중하면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지만 빈곤의 반복성에 집중하면 반복빈곤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빈곤한 상태가 장기간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개념인 계속빈곤이나 지속빈곤과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장기빈곤(long-term poverty)이 있다(김태완·이

주미, 2017; 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김환준, 2013). 다시 말해 장기빈곤은 지속빈곤에 더불어 여러 해에 걸쳐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반복빈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석대상 기간이 길어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을 구분하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빈곤을 경험했는가 빈곤의 심각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될 때 사용될 수 있다(김환준, 2013).

반면, 연도나 분기별 빈곤 이력을 활용해 빈곤을 유형화하지 않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활용해 빈곤을 유형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빈곤 진입과 탈출이 반복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평균소득이 빈곤선보다 낮은 경우를 항상 빈곤(permanent poverty)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OECD,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이외에도 빈곤무경험(never poor), 빈곤 경험은 있지만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상인 수시빈곤(occasionally poor)과 평균소득이 빈곤선 주위인 변동빈곤(fluctuating poor)을 포함하는 일시빈곤(transitory poor), 모든 시기 빈곤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통상빈곤(usually poor)과 모든 시기 빈곤한 항상빈곤(always poor)을 포함하는 만성빈곤(chronically poor)으로 구분하기도 한다(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2004). 즉, 일정 기간 동안 평균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경우를 만성빈곤이라 명명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만성빈곤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적 있다(이현주 외, 2012).

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분류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참여하는 이들의 재참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빈곤 경험과 정책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재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참여횟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참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참여기간과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같은 자활사업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장기간 지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참여자와 자활사업 참여와 중단을 반복하는 참여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참여횟수에 따라 재참여 유형을 분류하기에 앞서 먼저 자활사업 참여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유형(임진섭 외, 2010; 2011)이나 지역 유형(이

미라, 2012),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인식 유형(하승범·신원식, 2019)에 따라 분류하였다. 더 나아가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삶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탈수급 이후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빈곤한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김미곤 외, 2008; 이원진, 2010; 노대명, 원일, 2011; 조준용, 2020). 참여 기간에 관해서는 경승구·이용갑(2018)이 3년 이내 참여자를 단기참여자로, 3년 이상의 참여자를 장기참여자로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이 자활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빈곤동학의 기준을 차용해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빈곤동학 연구에서 빈곤구간의 길이와 횟수를 기준으로 일시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등으로 분류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일시참여, 단기참여, 장기참여, 반복참여, 지속참여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5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횟수 기준을 더해 단기참여자이면서 자활 참여횟수가 1번이면 일시단기참여자, 2번 이상이면 반복단기참여자로, 장기참여자이면서 자활 참여횟수가 1번이면 지속장기참여자, 2번 이상이면 반복장기참여자로 구분하였다.

3. 빈곤동학 및 자활사업 재참여 발생의 주요 원인 관련 선행연구

1) 빈곤동학 발생의 주요 원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곤동학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빈곤 진입과 탈출이라는 빈곤 이행과 지속기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빈곤동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빈곤 역동성을 둘러싸고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노인가구 등의 가구 변수, 고용형태나 상태 등의 고용 변수 등 다양한 영역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과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로는 미국과 유럽 7개국, 즉 8개 국가의 빈곤 역동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있는데 해당 연구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빈곤진입 요인이며 그 외에도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공적이전소득 감소 등의 요인임을 밝혔다(Duncan et al., 1993).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요인

은 빈곤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빈곤 진입의 영향요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김환준,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요인을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선행연구들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25세 이하인 청년인 경우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Cellini et al., 2008). 국내에서는 성별, 학력, 연령 등을 비롯해 가구원 수, 가구 구성, 건강상태, 고용 여부 및 형태, 직종, 사회보험 등이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병희·정재호, 2002; 김교성,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김은하, 2008; 김환준, 2011; 석상훈, 2011; 채구묵, 2015). 성별의 영향력은 여러 실증연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 진입률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되었다(Bane and Ellwood, 1986; Stevens, 1999; 김교성·최영, 2006; 김은하, 2008; 김환준, 2011). 특히, 근로빈곤층 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은하(2009)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력년수는 빈곤 탈출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일자리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진입 확률이 높다는 결과(김교성, 2002)와 연령이 낮을수록 빈곤 진입 확률이 높다는 결과(김교성·반정호, 2004)가 동시에 확인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초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병희·정재호, 2002)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중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빈곤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별과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주로 취업 여부와 고용 안정성을 매개하여 나타난다(김환준, 2011). 이는 실직과 고용 불안정이 빈곤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실업급여나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급액도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석상훈, 2011).

한편, 채구묵(2015)은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7년 치를 토대로 빈곤 진입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구 요인으로는 사별, 이혼과 미혼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보다, 고용 요인으로는 고용형태 측면에서 실업자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직종 측면에서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서비스 판매직이 전문사무직 종사자보다 빈곤 진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빈곤 탈출 후 재진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외, 2006). 즉, 노인 및

여성가구주인 경우, 직전 빈곤주기의 빈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미취업자인 경우 또는 취업했다라도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가 사용직 근로자에 비해 빈곤 재진입률이 높았다.

빈곤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빈곤 이행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이거나 고령자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구이거나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이 지속화, 장기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Bane and Ellwood, 1986; Biewen, 2014; 금재호·김승택, 2001;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석상훈, 2009; 김교성·노혜진, 2009; 지은정, 2020). 또한, 김위정·김왕배(2007)는 부모의 빈곤지위가 만성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실제로 부모의 빈곤이 교육을 매개로 성인 자녀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손병돈, 2017). 이는 빈곤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관계에 단절이 발생하며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가 어려워져 빈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Biewen, 2014).

2) 자활사업 재참여 발생의 주요 원인

자활사업 재참여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대신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험이나 자활성과, 자활을 통한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조준용, 2013; 백학영·조성은, 2014; 정수남, 2019; 조준용, 2020; 조일원·강혜영, 2023)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의 참여와 탈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면서도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지니고 있으며, 탈수급 이후에도 열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생계 유지의 전략의 일환으로 자활사업 재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전망이 자활사업 참여 여부보다는 연령이나 학력, 건강 상태, 과거 취업경험 등과 같은 인적자본적 특성과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원오·김진구, 2005)도 참여자가 느낄 탈수급 이후에 대한 막막함을 뒷받침해 준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탈수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연령, 미취학자녀비율, 신체 및 심리건강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경휘, 2017). 한편, 이충희(2019)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자들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면접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들이 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인 가구, 또는 1인 가구에 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들의 나쁜 건강상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위축을 불러일으켜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립의지와 인지된 고용장벽과 같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이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신영신, 2016).

한편, 박창균·이철인(2011)은 2002년부터 2005년 실시된 자활근로사업의 탈빈곤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활사업이 취업이나 자립을 통한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 즉 탈빈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된 자활사업 심층 평가 연구(김호원 외, 2016)에서도 역시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탈수급을 했더라도 민간노동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활사업이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고 자활사업의 근로 유형 자체가 청소나 간병 등 저숙련 노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증이 향후 본인들이 원하는 취·창업 직종과는 관련이 없어(이상아 외, 2022) 참여자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을 통해 민간노동시장으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했더라도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들은 다시 자활사업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및 특성분석

1. 분석개요: 자활정보시스템 DB 분석
2.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3.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집단별 특성 비교
4.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종단적 특성 변화
5. 소결

III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및 << 특성 분석

1. 분석개요: 자활정보시스템 DB 분석

자활정보시스템 DB는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DB로, 참여자별 자활사업 참여기간, 참여자의 참여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참여사업의 제도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참여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입력된 우리나라 자활정보시스템 DB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참여자별 종단데이터로 재구조화하였다. 연구윤리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 신원은 절대 특정할 수 없도록 한 데이터 형태로 받았으며, 오로지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용으로만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구분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세대유형,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	자활참여시점 당시 경제빈곤여부, 신용상태, 취업애로특성, 수급유형, 취업 경험, 창업 경험, 최근 5년 이내 정부일자리 참여 경험
제도적 특성	참여사업의 사업단 유형, 종결사유, 월간 자활급여, 월간 자립성과금

자활정보시스템 DB에서는 자활사업 일자리별로 입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참여자가 동일한 기간 내 여러 개의 자활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거나 참여하고 있던 자활사업의 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종결될 시 종결일 전후 인접한 기간 내 다른 자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시스템상 매해 12월 31일을 종결일로 처리하고 다음 해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ID별 자활사업 참여 지속기간을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주기 기간 및 횟수를 산출하였다. 즉, 참여자별 자활사업 참여주기를 계산할 때, DB 원자료에서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던 자활사업에 종결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결사유가 이사, 기간만료, 또는 사업단종결에 해당하고 해당 종결일 전후 30일 이내 다시 또 다른 자활사업 참여 시작일이 입력된 경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탈수급 후 재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활사업 종결일 후 반드시 적어도 한 달 이상의 탈수급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참여하는 경우여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수급 후 자활사업에 다시 돌아오는 반복 참여로 보고 참여횟수를 추가하였다.

〈표 III-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구분

구분		정의
일시참여	단기일시참여자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미만이고 참여주기가 1회 나타난 경우
	단기반복참여자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미만이고 2회 이상의 참여주기가 나타나는 경우
재참여	장기반복참여자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2회 이상의 참여주기가 나타나는 경우
	장기지속참여자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참여주기가 1회로 나타나는 경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및 근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로 인해 실제로는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복지의존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을 유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자활사업 현행 제도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당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참여자가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전체 총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속 참여 및 반복참여 양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실태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많지 않다. 여러 연구진 회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참여자별 실제 총 자활수급기간 및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표 Ⅲ-2>와 같이 참여유형을 정의하고,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관련 특성을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자활정보시스템 연간 DB는 2016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활정보시스템 DB 입력체계가 정립된 것은 2018년부터로, 자활정보시스템 DB 초기 입력 자료의 경우(2016-2017) 특히 자활사업 참여시작일 또는 종결일이 아예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9999년과 같이 정확하지 않고 완전한 데이터가 아닌 확률이 높다. 되도록 분석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고자 본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데이터를 모두 받아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시작일과 종결일이 모두 명확히 입력된 데이터만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개인적 및 제도적 관련 특성 역시 해당 변수값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었기에 전체 사례 수가 항목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1) 2016-2022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참여유형 구분

지난 7년간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총 자활참여기간 및 참여주기 평균 횟수, 참여주기별 평균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72.3%에 해당하는 단기일시 참여자의 경우 지난 7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한 총 기간은 평균 12.14개월이었으며, 통상 한 번 참여를 시작하면 약 1년간 지속해서 참여하다가 탈수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참여자 중 24.2%가 해당하는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지난 7년간 참여자별 총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20.93개월이었으며, 참여주기는 평균 2.37회, 참여주기별 참여기간은 평균 9.19개월로 나타났다. 단기일시 유형과 비교해 보면,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단기일시 유형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전체 기간이 평균 9개

월 가량 더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참여주기별 기간은 단기일시 참여유형보다 3개월가량 짧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체 중 2.0%가 해당하는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난 7년간 총 참여기간은 69.38개월이었으며, 참여주기는 평균 2.44회, 참여주기별 지속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은 평균 30.26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 1.5%가 해당하는 장기지속참여 유형의 경우 지난 7년간 총 참여기간은 평균 70.21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한 번 자활사업에 들어오면 중간에 쉬지 않고 약 5.85년간 지속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 2016-2022 전체 자활참여자 대상 참여유형별 특성

(단위: 명, %, 개월, 회, 개월)

구분	규모 (%)	평균 총 자활 참여기간	평균 참여주기 횟수	참여주기별 평균 참여기간
단기일시참여자	82191 (72.3%)	12.14개월	1회	12.14개월
단기반복참여자	27569 (24.2%)	20.93개월	2.37회	9.19개월
장기반복참여자	2261 (2.0%)	69.38개월	2.44회	30.26개월
장기지속참여자	1727 (1.5%)	70.21개월	1회	70.21개월
계	113748 (100.0%)	16.29개월	1.36회	12.67개월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표 Ⅲ-4〉 2022년도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서울특별시	5,122	2,784	223	88	8,217
경기도	2,823	1,379	187	107	4,496
부산광역시	2,294	1,137	99	61	3,591
경상남도	2,198	781	165	114	3,258
인천광역시	2,128	773	227	74	3,202
대구광역시	1,656	711	108	59	2,534
광주광역시	1,213	753	81	31	2,078
경상북도	1,328	427	141	112	2,008
강원특별자치도	1,221	438	149	154	1,962
전라북도	1,047	480	188	136	1,851
충청남도	925	482	120	79	1,606
전라남도	976	386	130	93	1,585
대전광역시	916	591	43	8	1,558
충청북도	644	298	64	31	1,037
울산광역시	505	170	28	13	716
제주특별자치도	417	227	11	4	659
세종특별자치시	121	43	17	9	190
계	25,534	11,860	1,981	1,173	40,548

2023년 현재 기준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에 입력된 DB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마지막 일자리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우리나라 지역별 거주인구 분포에 따라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 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많았지만,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지역별 분포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및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대체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

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으며,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별 경제 특성 및 산업인프라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유형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 집단별 특성 비교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분석 결과,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 총 참여자 중 남성 51.2%, 여성 48.8%로, 근소하게 남성이 높지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편이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및 단기반복 참여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인데 비해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참여자의 경우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2 수준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성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87.82$, $p<.001$).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연령 분포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표 III-5>).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지난 7년간 처음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을 당시 연령대는 51-60세가 35.1%, 61-70세가 23.1%, 41-50세가 21.5% 순이었다. 반면 단기반복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51-60세(39.1%), 41-50세(25.2%), 61-70세(17.0%) 순이었다.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51-60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비슷하지만 51-60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로 다른 유형에서보다 유독 51-60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1-50세가 29.0%, 61-70세가 11.4% 순이었다. 그러나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에는 61-70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51-60세가 39.9%, 41-50세가 25.1%, 61-70세가

21.3% 순이었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연령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099.13$, $p<.001$). 전체적으로는 51-60세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41-50세가 22.16%, 61-70세가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은퇴 연령에 이르기 전 한창 일할 시기인 40-60대에 자활사업에 들어오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 7년간 처음으로 자활 일자리에 들어온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활사업 참여자의 학력 분포 역시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5〉).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반적으로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입학~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18.2%,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17.6%,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14.7% 순이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고졸 이하가 4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졸 이하가 19.3%, 중졸 이하가 17.0%, 초졸 이하가 14.4%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고졸 이하가 5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가 18.8%, 대졸 이하가 16.3%, 초졸 이하가 14.1% 순으로,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비해 대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중졸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에는 초졸 이하 및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고졸 이하가 47.1%, 초졸 이하가 22.0%, 중졸 이하가 21.8% 순이었다. 장기지속 참여유형에서는 초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나 고졸 이하 43.8%, 초졸 이하 28.2%, 중졸 이하 18.8%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단기일시 참여유형보다는 단기반복 > 장기반복 > 장기지속 참여유형으로 갈수록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으며, 특히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다른 참여유형들에 비해 초졸 이하의 저학력 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학력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chi^2=603.15$, $p<.001$).

〈표 III-5〉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성별						387.82***
남	41,938(51.0)	14,828(53.8)	855(37.8)	629(36.4)	58,250(51.2)	
여	40,253(49.0)	12,741(46.2)	1,406(62.2)	1,098(63.6)	55,498(48.8)	
계	82,191(100)	27,569(100)	2,261(100)	1,727(100)	113,748(100)	
연령						1099.13***
≤20세	1,170 (1.4)	325 (1.2)	6 (0.3)	1 (0.1)	1,502 (1.3)	
21-30	7,925 (9.6)	2,118 (7.7)	81 (3.6)	89 (5.2)	10,213 (9.0)	
31-40	7,295 (8.9)	2,662 (9.7)	206 (9.1)	137 (7.9)	10,300 (9.1)	
41-50	17,652(21.5)	6,945(25.2)	655(29.0)	434(25.1)	25,686(22.6)	
51-60	28,879(35.1)	10,791(39.1)	1,053(46.6)	689(39.9)	41,412(36.4)	
61-70	19,000(23.1)	4,693(17.0)	257(11.4)	368(21.3)	24,318(21.4)	
71세≤	270 (0.3)	35 (0.1)	3 (0.1)	9 (0.5)	317 (0.3)	
계	82,191(100)	27,569(100)	2,261(100)	1,727(100)	113,748(100)	
학력						603.15***
≤초졸	10,973(14.4)	3,538(14.1)	402(22.0)	420(28.2)	15,333(14.7)	
≤중졸	12,931(17.0)	4,722(18.8)	398(21.8)	281(18.8)	18,332(17.6)	
≤고졸	37,008(48.6)	12,622(50.3)	861(47.1)	654(43.8)	51,145(48.9)	
≤대졸	14,661(19.3)	4,087(16.3)	163 (8.9)	128 (8.6)	19,039(18.2)	
대학원+	515 (0.7)	149 (0.6)	5 (0.3)	9 (0.6)	678 (0.6)	
계	76,088(100)	25,118(100)	1,829(100)	1,492(100)	104,527(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6〉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가구 상태

(단위: 명, %)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혼인상태						691.97***
미혼	27,991(37.2)	9,581(38.7)	441(24.4)	341(23.0)	38,354(37.1)	
기혼	11,514(15.3)	3,596(14.5)	505(27.9)	412(27.8)	16,027(15.5)	
별거	1,243 (1.7)	409 (1.7)	35 (1.9)	25 (1.7)	1,712 (1.7)	
사별	5,555 (7.4)	1,713 (6.9)	203(11.2)	213(14.4)	7,684 (7.4)	
이혼	27,459(36.5)	8,975(36.2)	581(32.1)	465(31.4)	37,480(36.3)	
동거	707 (0.9)	204 (0.8)	25 (1.4)	8 (0.5)	944 (0.9)	
비해당	153 (0.2)	59 (0.2)	4 (0.2)	4 (0.3)	220 (0.2)	
기타	630 (0.8)	241 (1.0)	14 (0.8)	14 (0.9)	899 (0.9)	
계	75,252(100)	24,778(100)	1,808(100)	1,482(100)	103,320(100)	

* $p < .05$, ** $p < .01$, *** $p < .001$.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가구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먼저 지난 7년 중 처음으로 자활 일자리에 들어온 당시 참여자들의 혼인상태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미혼의 비율이 37.1%, 이혼의 비율이 36.3%로 높고, 그 다음으로 기혼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혼인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전체 참여자 분포와 비슷하게 미혼 37.2%, 이혼 36.5%, 기혼 15.3%, 사별 7.4%의 순이었으며,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미혼 38.7%, 이혼 36.2%, 기혼 14.5%, 사별 6.9%의 순이었다. 그러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이혼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혼이 27.9%로 높고, 미혼이 24.4%, 사별이 11.2%로 나타났다.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장기반복 참여유형과 비슷하게 이혼이 3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혼이 27.8%, 미혼이 23.0%, 사별이 14.4%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자활사업 참여유형에서나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참여유형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기일시 및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확연히 적게 나타나는 대신 기혼 및 사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기일시 및 단기반복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활 참여유형별 혼인상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691.97, p<.001$).

〈표 III-7〉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건강 상태

(단위 : 명, %)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신체적 건강상태						73.75***
양호	23,078(30.6)	7,451(30.0)	574(32.1)	514(34.7)	31,617(30.5)	
보통	37,205(49.3)	12,698(51.1)	948(53.0)	717(48.4)	51,568(49.8)	
허약	15,221(20.2)	4,678(18.8)	266(14.9)	251(16.9)	20,416(19.7)	
계	75,504(100)	24,827(100)	1,788(100)	1,482(100)	103,601(100)	
심리적 건강상태						114.48***
양호	36,254(48.1)	11,744(47.4)	947(53.5)	787(53.4)	49,732(48.1)	
보통	32,420(43.0)	11,009(44.4)	748(42.2)	624(42.3)	44,801(43.3)	
허약	6,727 (8.9)	2,041 (8.2)	76 (4.3)	63 (4.3)	8,907 (8.6)	
계	75,401(100)	24,794(100)	1,771(100)	1,474(100)	103,440(100)	
정신건강이상여부						24.06***
아니오	64,989(88.6)	21,238(88.2)	1,543(90.4)	1,299(91.9)	89,069(88.6)	
예	8,342(11.4)	2,834(11.8)	163 (9.6)	115 (8.1)	11,454(11.4)	
계	73,331(100)	24,072(100)	1,706(100)	1,414(100)	100,523(100)	

* $p<.05$, ** $p<.01$, *** $p<.001$.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참여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를 분석해보면, 신체적 건강상태($\chi^2=73.75, p<.001$) 및 심리적 건강상태($\chi^2=114.48, p<.001$), 정신건강 이상여부($\chi^2=24.06, p<.001$) 모두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체적으로는 보통이거나 양호한 상태에 있는 비중이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취업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참여유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상태가

허약하지 않은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이상여부의 경우,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의 정신건강 이상여부 분포는 단기일시 참여유형에서의 정신건강 이상여부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참여유형으로 갈수록 정신건강에 이상 없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술할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종결사유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상태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2) 경제적 상태

지난 7년간 DB에서 첫 자활 일자리에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먼저 신용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용양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7%로 가장 많고 신용불량이 24.1%, 개인회생 3.0%, 파산면책 2.7%, 파산신청 2.0% 순이었다. 그러나 첫 자활 일자리 기준 참여자의 신용상태 분포는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chi^2=259.12$, $p<.001$), 단기일시 참여유형 및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전체적인 신용상태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장기반복 참여유형 및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신용양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훨씬 더 높고 신용불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첫 자활 일자리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유형을 살펴보면(<표 Ⅲ-9>),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6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수급자가 16.7%, 차상위가 15.5%, 자활특례가 1.9%, 시설수급자 0.4%, 일반인이 0.1% 순이었다.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단기일시 참여유형과 비슷하게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6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수급자 15.1%, 차상위 14.6%, 자활특례 2.3%, 시설수급자 0.5%, 일반인 0.4%의 순이었다. 그러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57.9%로 가장 높은 것은 비슷하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차상위 20.8%, 일반수급자 15.2%, 자활특례 5.8%, 시설수급자 0.2%, 일반인 0.0%이었다.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53.3%, 차상위가 25.7%, 일반수급자가 16.2%, 자활특례가 4.2%, 시설수급자가 0.6%, 일반인이 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기반복 참여유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조건부수급자의 비중이 적고 차상위의 비중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수급유형의 분포는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25.30, p<.001$).

첫 자활 일자리 진입 시점 기준 참여자의 경제빈곤 여부를 살펴보면(〈표 III-8〉), 전체적으로 경제빈곤에 처해있었던 경우가 27.1%로, 단기일시 참여유형 및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경제빈곤에 처해있었다는 응답이 19.8%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경제빈곤에 처해있었던 참여자의 비중은 21.4%로 전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경제빈곤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6.72, p<.001$).

첫 자활 일자리 진입 시점 기준 참여자의 직업능력 애로 여부를 살펴보면(〈표 III-8〉),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을 막론하고 직업능력에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던 참여자들이 전체의 약 1/3을 넘는 비율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반 취업시장에서 겪는 고충이 큰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직업능력에 애로사항을 경험하는 참여자의 비중이 35.0%로 조사되었는데,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이 비중이 36.8%로 1.8%p 높았으며,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에도 해당 비중이 36.4%로 1.4%p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26.95, p<.001$).

첫 자활 일자리 진입 시점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의욕 상실 여부를 살펴보면(〈표 III-8〉),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10.6%가 근무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10.4%가 근무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11.3%가 근무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비해 근무의욕을 상실한 참여자들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근무의욕을 상실한 참여자들의 비중이 9.3%,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9.8%로 전체 평균보다 더 적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근무의욕을 상실한 참여자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58, p<.001$).

〈표 Ⅲ-8〉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경제적 상태

(단위: 명, %)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신용상태						259.12***
신용양호	48,107(65.8)	15,294(63.8)	1,247(73.7)	1,100(78.2)	65,748(65.7)	
신용불량	17,453(23.9)	6,257(26.1)	267(15.8)	205(14.6)	24,182(24.1)	
파산신청	1,502 (2.1)	457 (1.9)	28 (1.7)	19 (1.4)	2,006 (2.0)	
파산면책	1,973 (2.7)	668 (2.8)	72 (4.3)	26 (1.8)	2,739 (2.7)	
개인회생	2,247 (3.1)	722 (3.0)	39 (2.3)	32 (2.3)	3,040 (3.0)	
워크아웃	735 (1.0)	215 (0.9)	6 (0.4)	4 (0.3)	960 (1.0)	
전환대출신청	79 (0.1)	25 (0.1)	5 (0.3)	1 (0.1)	110 (0.1)	
기타신청	986 (1.3)	320 (1.3)	27 (1.6)	20 (1.4)	1,353 (1.4)	
계	73,082(100)	23,958(100)	1,691(100)	1,407(100)	100,138(100)	
수급유형						625.30***
일반수급자	13,757(16.7)	4,158(15.1)	343(15.2)	279(16.2)	18,537(16.3)	
조건부수급자	53,756(65.4)	18,489(67.1)	1,307(57.9)	920(53.3)	74,472(65.5)	
자활특례	1,533 (1.9)	627 (2.3)	132 (5.8)	72 (4.2)	2,364 (2.1)	
차상위	12,725(15.5)	4,032(14.6)	470(20.8)	444(25.7)	17,671(15.5)	
일반인	73 (0.1)	110 (0.4)	0 (0.0)	0 (0.0)	183 (0.2)	
시설수급자	343 (0.4)	125 (0.5)	5 (0.2)	11 (0.6)	484 (0.4)	
계	82,187(100)	27,541(100)	2,257(100)	1,726(100)	113,711(100)	
경제빈곤여부						76.72***
아니오	53,487(72.9)	17,356(72.1)	1,368(80.2)	1,111(78.6)	73,322(72.9)	
예	19,844(27.1)	6,716(27.9)	338(19.8)	303(21.4)	27,201(27.1)	
계	73,331(100)	24,072(100)	1,706(100)	1,414(100)	100,523(100)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직업능력애로여부						26.95***
아니오	47,696(65.0)	15,218(63.2)	1,107(64.9)	900(63.6)	64,921(64.6)	
예	25,635(35.0)	8,854(36.8)	599(35.1)	514(36.4)	35,602(35.4)	
계	73,331(100)	24,072(100)	1,706(100)	1,414(100)	100,523(100)	
근무의욕상실여부						22.58***
아니오	65,735(89.6)	21,341(88.7)	1,547(90.7)	1,276(90.2)	89,899(89.4)	
예	7,596(10.4)	2,731(11.3)	159 (9.3)	138 (9.8)	10,624(10.6)	
계	73,331(100)	24,072(100)	1,706(100)	1,414(100)	100,523(100)	

* α .05, ** α .01, *** α .001.

〈표 III-9〉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취·창업 경험

(단위: 명, %)

변수	단기일시 빈도(%)	단기반복 빈도(%)	장기반복 빈도(%)	장기지속 빈도(%)	전체 빈도(%)	χ^2
취업경험						285.73***
아니오	52,192(63.5)	17,840(64.7)	1,757(77.7)	1,293(74.9)	73,082(64.2)	
예	29,999(36.5)	9,729(35.3)	504(22.3)	434(25.1)	40,666(35.8)	
계	82,191(100)	27,569(100)	2,261(100)	1,727(100)	113,748(100)	
창업경험						129.89***
아니오	73,191(89.0)	24,792(89.9)	2,147(95.0)	1,622(93.9)	101,752(89.5)	
예	9,000(11.0)	2,777(10.1)	114 (5.0)	105 (6.1)	11,996(10.5)	
계	82,191(100)	27,569(100)	2,261(100)	1,727(100)	113,748(100)	
최근 5년 이내 정부 일자리 참여 경험						31.23***
아니오	77,663(94.5)	25,844(93.7)	2,160(95.5)	1,611(93.3)	107,278(94.3)	
예	4,528 (5.5)	1,725 (6.3)	101 (4.5)	116 (6.7)	6,470 (5.7)	
계	82,191(100)	27,569(100)	2,261(100)	1,727(100)	113,748(100)	

* α .05, ** α .01, *** α .001.

다음으로 지난 7년간 DB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첫 자활 일자리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취·창업 경험 및 정부일자리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먼저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35.8%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36.5%로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35.3%가 취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자활일자리 진입 전 취업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들의 비중이 22.3%에 불과하였으며,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취업 경험은 25.1%에 불과하여, 취업 경험이 없었던 참여자일수록 자활사업에 오래 남아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단기참여자 대비 장기참여자의 창업 경험이 적은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5.73$, $p<.001$).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첫 자활 일자리 시작 전 창업 경험을 살펴보면 (<표 Ⅲ-9>), 전체 참여자 중 10.5%가 자활 일자리 진입 전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11.0%,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10.1%가 창업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반복 참여유형에서 자활 일자리 진입 전 창업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의 비중은 5.0%에 불과하였으며, 장기지속 참여유형 역시 창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비중은 6.1%였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 유형별 창업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129.39$, $p<.001$).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처음으로 자활 일자리에 들어온 해를 기준으로 이전 5년 내 정부 일자리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Ⅲ-9>),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5.7%가 정부 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첫 자활 일자리 기준 최근 5년내 정부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5.5%이었으나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6.3%, 장기지속 유형의 경우 6.7%로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반복 유형의 경우 첫 자활 일자리에 들어오기 전 정부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의 비중은 4.5%로, 단기일시 유형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31.23$, $p<.001$).

3) 제도적 특성

이번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한 자활사업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III-10>은 첫 자활 일자리 기준 사업단 유형 분포를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총 자활사업 참여자 중 49.9%가 게이트웨이로 첫 자활 일자리를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30.2%,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14.3%,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1.3%, 파일럿 사업단이 1.1%, 시간제 자활근로가 1.0% 순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첫 자활 일자리 당시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사업단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chi^2=3668.36$, $p<.001$).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게이트웨이가 51.0%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29.6%,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13.6%,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1.5%, 시간제 자활근로가 1.2%, 파일럿 사업단이 1.0% 순이었다.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가장 많은 게이트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52.7%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27.7%,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14.7%, 파일럿 사업단이 1.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0.9%, 시간제 자활근로가 0.7% 순이었다. 그에 비해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28.1%, 게이트웨이가 9.7%, 파일럿 사업단이 1.8%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았다.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23.3%, 게이트웨이가 7.4%, 파일럿 사업단이 2.8% 순이었으며, 다른 참여유형과 달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마지막 자활 일자리 기준 사업단 유형 분포 역시 자활 참여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표 III-11>), 단기일시 참여자의 경우 게이트웨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참여한 경우가 45.8%로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마지막으로 참여한 경우가 32.6%,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1.6%, 시간제 자활근로가 1.4% 순이었다.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게이트웨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참여한 경우가 4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36.0%,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15.5% 순이었으며 시간제 자활근로가 2.2%로 단기일시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마지막 자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었던 경우가 66.5%로 가장 높고,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24.9%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게이트웨이 4.1%, 시간제 자활근로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지

속 참여유형의 경우에도 마지막 자활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었던 경우가 66.3%로 가장 높고,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27.1%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이 2.5%, 시간제 자활근로가 1.4% 순이었다. 이러한 참여유형별 마지막 자활 일자리 기준 사업단 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663.95, p<.001$).

마지막 자활 일자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종결사유가 자활 참여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먼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마지막 자활 일자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단종결로 끝난 경우가 33.2%로 가장 높고, 사업기준 기간 만료로 종결한 경우가 16.2%, 기타가 14.9%, 건강이라는 개인 사유로 종결한 경우가 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DB 시스템상 해당년도에 이루어졌던 자활사업들은 매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종결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 다음 해에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따로 명백히 구분한 항목이 없어 실제 자활 현장에서는 해를 넘겨 지속되는 경우 종결사유를 사업단 종결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사업단 종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22년도에 자활사업 참여한 사람들 중 2023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재참여(단기반복,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유형에서 마지막 자활 일자리가 사업단 종결로 끝난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 자활사업 종결사유 분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장기 재참여(장기반복 및 장기지속)유형의 경우 사업단 종결로 끝나는 비중이 42.3%에서 67.2%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일수록 지금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비중이 높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비해 재참여(단기반복,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유형에서 사업기준 기간 만료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 역시 특기할 만한데, 이는 재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종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III-10〉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변수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χ^2
첫 자활 참여당시 사업단 유형						3668.36***
게이트웨이	41,931 (51.0%)	14,532 (52.7%)	219 (9.7%)	127 (7.4%)	56,809 (49.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287 (0.3%)	92 (0.3%)	15 (0.7%)	44 (2.5%)	438 (0.4%)	
기타(자활근로사업 외 위탁사업)	13 (0.0%)	6 (0.0%)	1 (0.0%)	0 (0.0%)	20 (0.0%)	
도우미사업단 (복지도우미)	241 (0.3%)	59 (0.2%)	2 (0.1%)	0 (0.0%)	302 (0.3%)	
도우미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	489 (0.6%)	152 (0.6%)	20 (0.9%)	13 (0.8%)	674 (0.6%)	
도우미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309 (0.4%)	52 (0.2%)	4 (0.2%)	7 (0.4%)	372 (0.3%)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24,294 (29.6%)	7,634 (27.7%)	1,309 (57.9%)	1,075 (62.2%)	34,312 (30.2%)	
시간제자활근로	966 (1.2%)	194 (0.7%)	0 (0.0%)	0 (0.0%)	1,160 (1.0%)	
시장진입형 사업단	11,140 (13.6%)	4,049 (14.7%)	636 (28.1%)	403 (23.3%)	16,228 (14.3%)	
예비자활기업	25 (0.0%)	13 (0.0%)	0 (0.0%)	0 (0.0%)	38 (0.0%)	
인큐베이팅	145 (0.2%)	104 (0.4%)	8 (0.4%)	8 (0.5%)	265 (0.2%)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301 (0.4%)	109 (0.4%)	7 (0.3%)	1 (0.1%)	418 (0.4%)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216 (1.5%)	238 (0.9%)	0 (0.0%)	0 (0.0%)	1,454 (1.3%)	
파일럿사업단	834 (1.0%)	335 (1.2%)	40 (1.8%)	49 (2.8%)	1,258 (1.1%)	
계	82,191 (100.0%)	27,569 (100.0%)	2,261 (0.0%)	1,727 (100.0%)	113,748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11〉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단위: 명)

변수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χ^2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3663.95***
게이트웨이	37,677 (45.8%)	11,654 (42.3%)	93 (4.1%)	12 (0.7%)	49,436 (43.5%)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303 (0.4%)	107 (0.4%)	15 (0.7%)	43 (2.5%)	468 (0.4%)	
기타(자활근로사업 외 위탁사업)	10 (0.0%)	4 (0.0%)	0 (0.0%)	0 (0.0%)	14 (0.0%)	
도우미사업단 (복지도우미)	265 (0.3%)	51 (0.2%)	0 (0.0%)	1 (0.1%)	317 (0.3%)	
도우미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	412 (0.5%)	98 (0.4%)	4 (0.2%)	9 (0.5%)	523 (0.5%)	
도우미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318 (0.4%)	87 (0.3%)	8 (0.4%)	7 (0.4%)	420 (0.4%)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26,761 (32.6%)	9,938 (36.0%)	1,504 (66.5%)	1,145 (66.3%)	39,348 (34.6%)	
시간제 자활근로	1,187 (1.4%)	605 (2.2%)	44 (1.9%)	25 (1.4%)	1,861 (1.6%)	
시장진입형 사업단	12,996 (15.8%)	4,280 (15.5%)	562 (24.9%)	468 (27.1%)	18,306 (16.1%)	
예비자활기업	47 (0.1%)	58 (0.2%)	0 (0.0%)	0 (0.0%)	105 (0.1%)	
인큐베이팅	120 (0.1%)	23 (0.1%)	0 (0.0%)	0 (0.0%)	143 (0.1%)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374 (0.5%)	212 (0.8%)	21 (0.9%)	8 (0.5%)	615 (0.5%)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306 (1.6%)	347 (1.3%)	4 (0.2%)	4 (0.2%)	1,661 (1.5%)	
파일럿사업단	415 (0.5%)	105 (0.4%)	6 (0.3%)	5 (0.3%)	531 (0.5%)	
계	82,191 (100.0%)	27,569 (100.0%)	2,261 (100.0%)	1,727 (100.0%)	113,748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12〉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종결사유

변수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χ^2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종결 사유						2889.18***
취업(일반기업)	4,517 (5.5%)	989 (3.6%)	24 (1.1%)	46 (2.7%)	5,576 (4.9%)	
취업(자활기업)	998 (1.2%)	312 (1.1%)	18 (0.8%)	32 (1.9%)	1,360 (1.2%)	
취업(장기요양)	157 (0.2%)	34 (0.1%)	4 (0.2%)	0 (0.0%)	195 (0.2%)	
취업(복권기금)	30 (0.0%)	0 (0.0%)	0 (0.0%)	0 (0.0%)	30 (0.0%)	
취업(바우처)	171 (0.2%)	13 (0.0%)	0 (0.0%)	1 (0.1%)	185 (0.2%)	
취업(기타)	1,961 (2.4%)	457 (1.7%)	10 (0.4%)	14 (0.8%)	2,442 (2.1%)	
창업(개인)	252 (0.3%)	64 (0.2%)	2 (0.1%)	2 (0.1%)	320 (0.3%)	
창업(자활기업)	539 (0.7%)	95 (0.3%)	6 (0.3%)	6 (0.3%)	646 (0.6%)	
창업(기타)	62 (0.1%)	20 (0.1%)	0 (0.0%)	0 (0.0%)	82 (0.1%)	
개인사유(탈수급)	651 (0.8%)	181 (0.7%)	15 (0.7%)	23 (1.3%)	870 (0.8%)	
개인사유(건강)	10,370 (12.6%)	3,268 (11.9%)	91 (4.0%)	44 (2.5%)	13,773 (12.1%)	
개인사유(이사)	998 (1.2%)	332 (1.2%)	8 (0.4%)	2 (0.1%)	1,340 (1.2%)	
개인사유(진학)	642 (0.8%)	129 (0.5%)	1 (0.0%)	1 (0.0%)	773 (0.7%)	
개인사유(사망)	276 (0.3%)	105 (0.4%)	4 (0.2%)	4 (0.2%)	389 (0.3%)	
개인사유(군입대)	341 (0.4%)	39 (0.1%)	0 (0.0%)	0 (0.0%)	380 (0.3%)	
사업기준 (조건불이행)	4,456 (5.4%)	1,571 (5.7%)	24 (1.1%)	10 (0.6%)	6,061 (5.3%)	
사업기준 (기간만료)	12,226 (14.9%)	4,980 (18.1%)	434 (19.2%)	737 (42.7%)	18,377 (16.2%)	
사업기준 (대상자취소)	402 (0.5%)	136 (0.5%)	2 (0.1%)	3 (0.2%)	543 (0.5%)	

변수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χ^2
사업기준 (사업단종결)	30,252 (36.8%)	10,967 (39.8%)	1,520 (67.2%)	731 (42.3%)	43,470 (38.2%)	
기타	12,864 (15.7%)	3,864 (14.0%)	98 (4.3%)	71 (4.1%)	16,897 (14.9%)	
계	82,165 (100.0%)	27,556 (100.0%)	2,261 (100.0%)	1,727 (100.0%)	113,709 (100.0%)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7년간의 DB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별 마지막 자활 일자리의 종결사유를 분석해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참여 유형, 특히 장기 재참여 유형에서 자활사업에의 의존도가 높아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향상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기일시 참여유형에서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서 종결사유가 일반기업에 취업한 경우인 비중이 5.5%로 나타나는데, 비록 낮은 확률이지만 하나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3.6%,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2.7%가 일반기업에 취업하며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재참여 유형 중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해 보이는 유형은 장기반복 참여유형으로,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일반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자활일자리를 종결하는 비중이 1.1%로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취·창업 종류를 막론하고 취업 및 창업으로 종결하는 비중 또한 다른 재참여 유형에 비해 모두 낮은 편이었다.

특기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단기 참여유형의 경우 다른 참여유형에 비해 참여자 수도 높지만 자립(취·창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할 확률 또한 높았다는 점이다. 건강 등의 개인사유로 자활사업 참여를 종결한 비중이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12.6%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반복 유형에서 11.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기반복 유형에서는 해당 사유로 종결한 비율이 4.0%, 장기지속 유형에서는 2.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자활사업에도 오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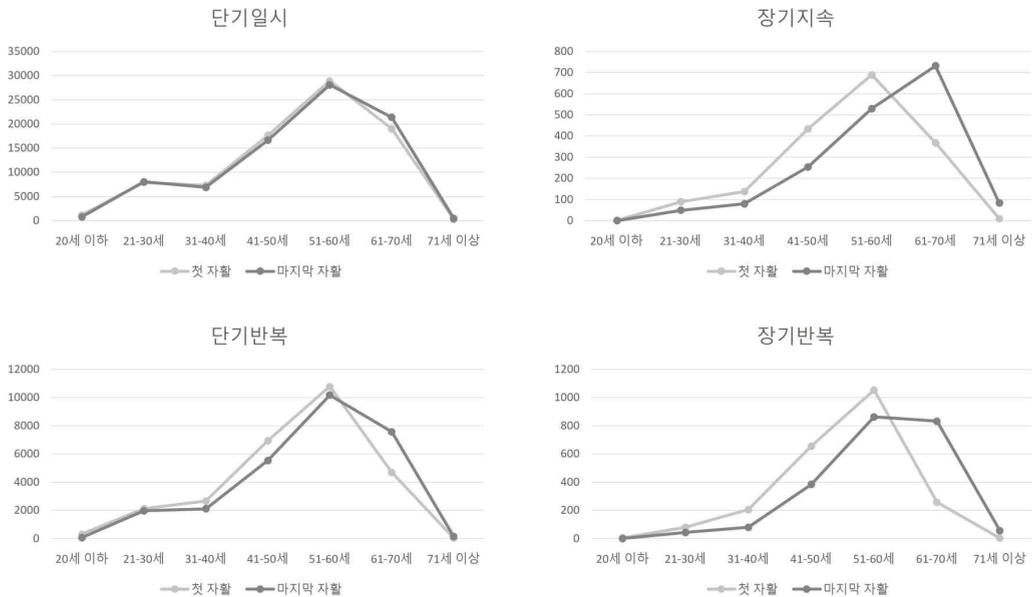
4.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종단적 특성 변화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번에는 지난 7년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와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종단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연령은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연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df) = -132.41(113747)$, $p < .001$). 자활 참여유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일시($t(df) = -79.29(82190)$, $p < .001$), 단기반복($t(df) = -97.58(27568)$, $p < .001$), 장기반복($t(df) = -57.45(2260)$, $p < .001$), 장기지속($t(df) = -44.88(1726)$, $p < .001$) 유형에서 모두 첫 자활일자리 참여 당시 연령 대비 마지막 자활일자리 참여 당시 연령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연령

(단위 : 명)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유형을 막론하고 자활 참여자들의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은 앞서 <표 Ⅲ-3>에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총 참여기간이 첫 자활 사업 참여 이후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일시 유형에 비해 자활사업 재참여(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유형에서 40-50대에 처음으로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60대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첫 자활 일자리 당시 학력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당시 학력은 어떨까? 학력의 경우 단기일시 유형($\chi^2=1.63, p=1.000$) 뿐 아니라 단기반복($\chi^2=24.02, p=.089$)이나 장기반복($\chi^2=10.29, p=.851$), 장기지속($\chi^2=4.71, p=.990$)과 같은 재참여 유형에서 모두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학력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단기일시 참여유형에서는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chi^2=0.02, p=.988$),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는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신체적 건강상태가 허약에 해당하는 비율은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허약인 비율보다 0.8%p 줄어들고(18.8%→18.0%), 보통에 해당하는 비율은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비율보다 2.1%p 높아지는 등(51.1%→53.2%)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chi^2=21.49, p<.01$). 그러나 장기반복($\chi^2=4.94, p=.085$) 및 장기지속($\chi^2=2.62, p=.270$) 참여유형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심리·정신건강의 경우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심리적 건강상태에서 허약이라고 응답한 비율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심리적 건강상태를 허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8.2%→8.7%)($\chi^2=15.19, p<.01$),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서 정신건강 이상증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첫 자활 일자리에서의 해당 비율보다 증가하는 등(11.8%→12.6%)($\chi^2=8.54, p<.01$) 신체적 건강상태에서의 변화와 달리 심리·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반복 참여유형에서만 나타났는데, 단기일시 및 장기반복, 장기지속 유형과 같이 다른 참여유형에서는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심리적 건강상태(단기일시: $\chi^2=0.15, p=.930$, 장기반복: $\chi^2=0.42, p=.813$, 장기지속: $\chi^2=0.56, p=.757$) 및 정신건강 이상(단기일시: $\chi^2=0.59, p=.443$, 장기반복: $\chi^2=0.56, p=.454$, 장기지속: $\chi^2=0.47, p=.493$)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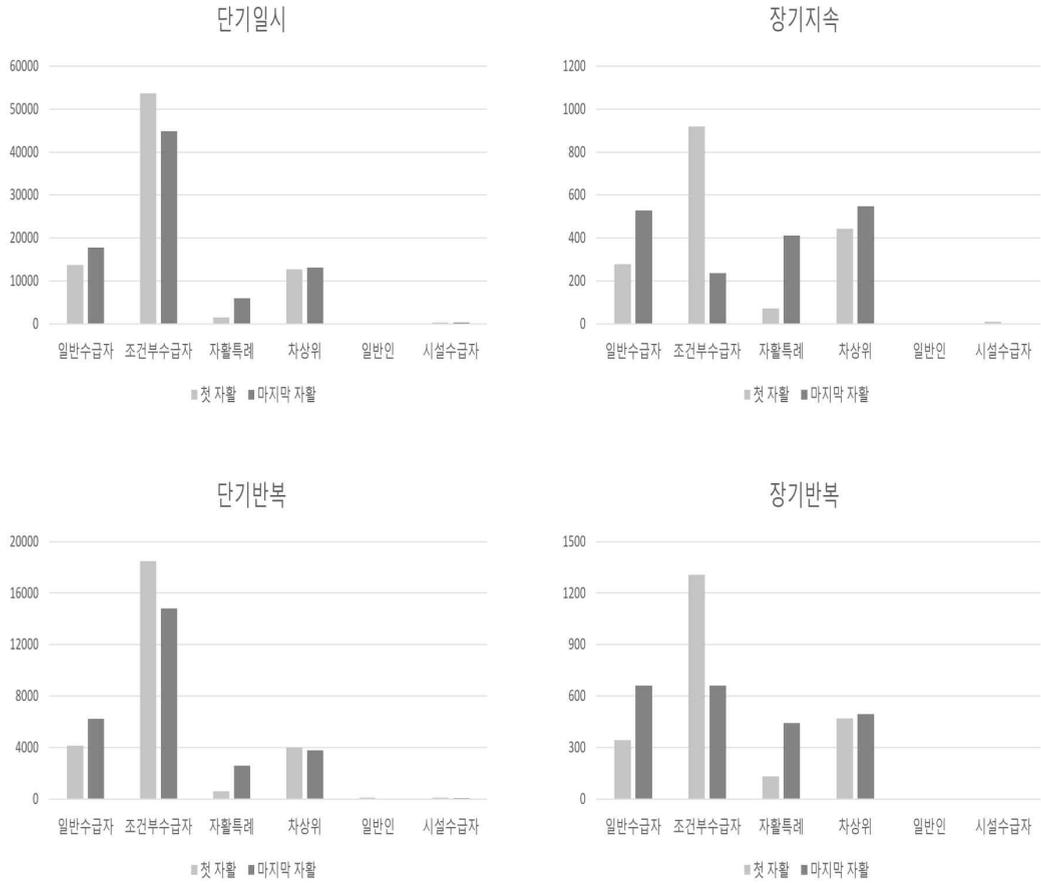
이번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빈곤을 살펴보면, 단기일시($\chi^2=0.001$, $p=.981$) 유형에서뿐 아니라 단기반복($\chi^2=0.28$, $p=.597$), 장기반복($\chi^2=0.72$, $p=.398$), 장기지속($\chi^2=0.001$, $p=.973$) 유형에서 모두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경제빈곤 상태는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경제빈곤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상태에는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평균 1년여의 단기간에 불과한 단기일시 참여자의 경우 유의한 신용상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chi^2=1.21$, $p=.991$) 단기반복 참여자($\chi^2=35.69$, $p<.001$) 및 장기반복 참여자의 경우($\chi^2=17.45$, $p<.05$)에는 자활 일자리를 처음 들어왔을 때의 신용상태보다 마지막으로 참여할 때의 신용상태가 다소 좋아졌다. 예를 들면, 단기반복 참여자의 경우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신용이 양호했던 참여자의 비중이 63.8%이고 신용 불량이었던 비중이 26.1%였으나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 참여할 당시에는 신용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6%로 증가하였으며 신용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로 감소하였다. 장기반복 참여자의 경우에도 첫 자활 일자리 당시에는 신용 양호 비율이 73.7%이고 신용 불량 비율이 15.8%이었으나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신용 양호 비율이 78.2%, 신용 불량 비율이 12.4%로 신용상태가 다소 향상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참여유형에서 첫 자활 일자리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의 수급유형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단기일시: $\chi^2=3978.50$, $p<.001$, 단기반복: $\chi^2=2098.60$, $p<.001$, 장기반복: $\chi^2=485.03$, $p<.001$, 장기지속: $\chi^2=738.05$, $p<.001$). 자활 참여유형별 첫 자활 일자리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수급유형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결과는 [그림 III-2]와 같다. 모든 참여유형에서 처음 자활 일자리를 시작할 때 조건부수급자였던 비율보다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조건부수급자일 비율이 낮아지고, 첫 자활 일자리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일반 수급자 비중 및 자활 특례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장기지속 참여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차상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2]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수급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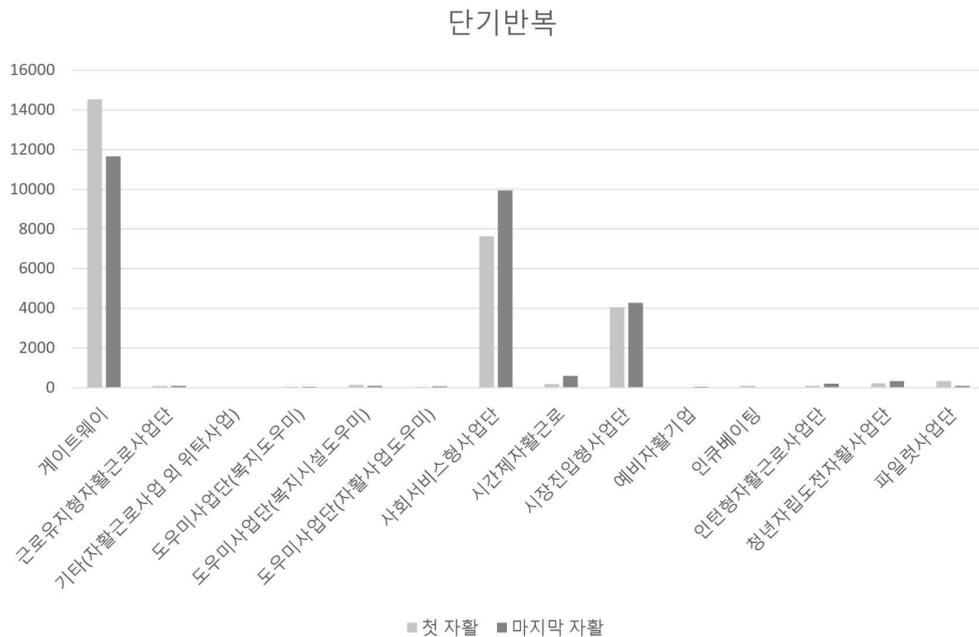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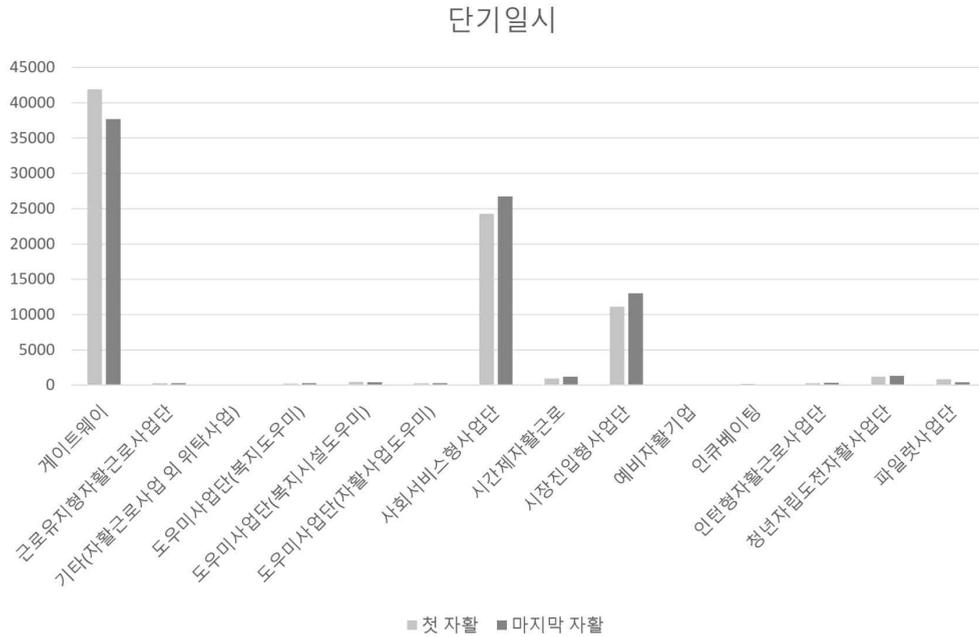
3) 제도적 특성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단 유형에 있어서 같은 참여자라 하더라도 첫 자활 일자리에에서의 사업단 유형 분포와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에서의 사업단 유형 분포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자활사업 참여유형에서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의 사업단 유형 분포는 첫 자활 참여 당시 대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단기일시: $\chi^2=681.36$, $p<.001$, 단기반복: $\chi^2=1112.59$, $p<.001$, 장기반복: $\chi^2=172.10$, $p<.001$, 장기지속: $\chi^2=182.24$, $p<.001$). 전반적으로 [그림 III-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참여유형에서 마지막 자활 일자리의 경우 첫 자활 일자리에 비해 게이트웨이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단기일시 참여유형에 비해 재참여(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유형의 경우 시간제 자활근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단기일시 참여유형의 경우 첫 자활 일자리 및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에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다소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재참여 유형에서는 단기반복 > 장기반복 > 장기지속으로 갈수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찾아보기 힘든 경향이 있었다. 장기 재참여 유형,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지속 참여유형에서는 첫 자활 일자리에에서 뿐 아니라 마지막 자활 일자리에에서 다른 유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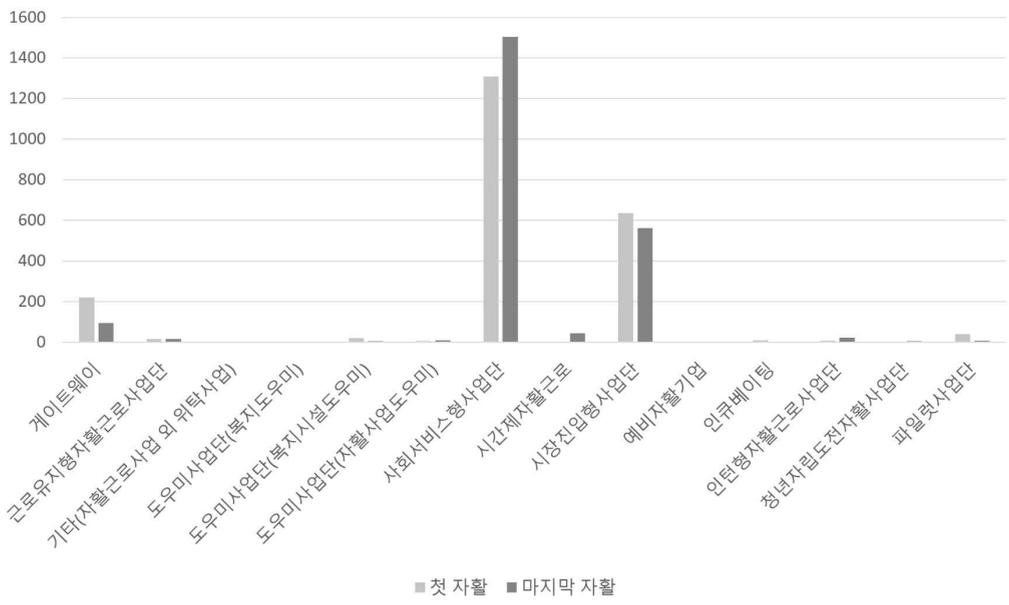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기준 월 평균 자활급여와 마지막 자활 종결년도 기준 월 평균 자활급여와 비교해 보았다.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자활사업 참여유형에서 첫 자활 진입년도 기준 월 평균 자활급여보다 마지막 자활 종결년도 기준 월 평균 자활급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그 증가폭은 일시단기 참여유형에 비해 재참여 유형(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III-14>는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기준 월 평균 자립성과금과 마지막 자활 종결년도 기준 월 평균 자립성과금을 비교해 본 결과인데, 이 역시 <표 III-13>과 같이 일시단기 참여유형에 비해 재참여 유형(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에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Ⅲ-3] 참여유형별 첫 자활 대비 마지막 자활 참여 당시 사업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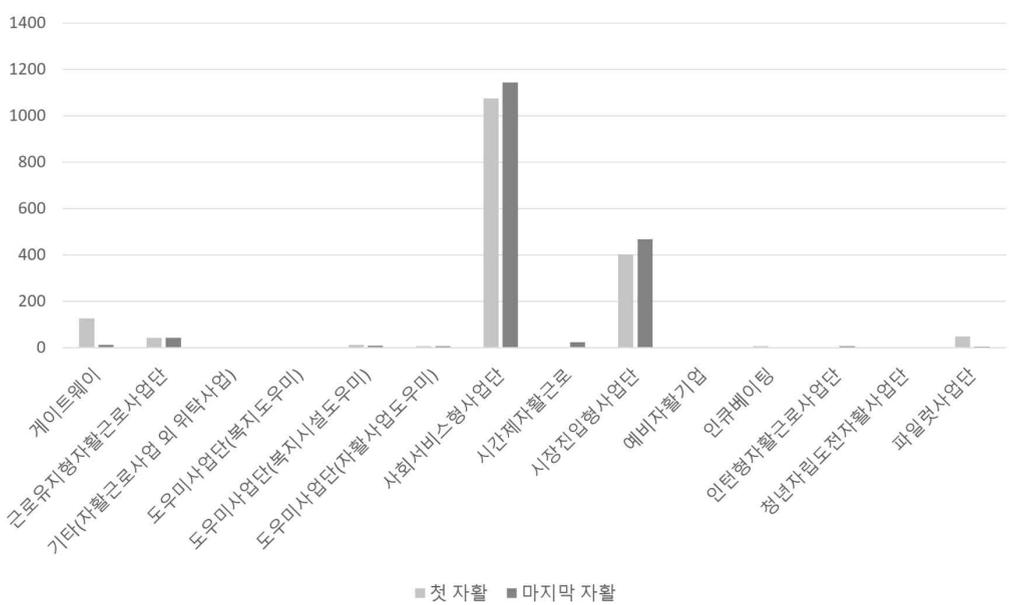
(단위 : 명)



장기반복



장기지속



〈표 Ⅲ-13〉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대비
마지막 자활 종결년도 기준 월 평균 자활급여

(단위 : 원)

년도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첫 자활 기준	627,844	604,550	608,673	642,149	622,170
마지막 자활 기준	688,726	829,409	906,452	918,974	739,669
<i>t</i> (<i>df</i>)	-7.86*** (17362)	-7.39*** (5518)	-38.08*** (1391)	-16.65*** (875)	-13.66*** (25149)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주) 참여유형별 월 평균 자활급여 = 해당년도 $\frac{\text{참여자별 총수급 자활급여}}{\text{참여자별 총수급 참여일수}} \times 30\text{일}$

〈표 Ⅲ-14〉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첫 자활 진입년도 대비
마지막 자활 종결년도 기준 월 평균 자립성과금

(단위 : 원)

년도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전체
첫 자활 기준	28,022	19,003	15,986	17,186	24,999
마지막 자활 기준	67,869	116,454	135,460	141,395	84,833
<i>t</i> (<i>df</i>)	-21.56*** (17362)	-13.28*** (5518)	-23.51*** (1391)	-18.96*** (875)	-28.56*** (25149)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주) 참여유형별 월 평균 자립성과금 = 해당년도 $\frac{\text{참여자별 총수급 자립성과금}}{\text{참여자별 총수급 참여일수}} \times 30\text{일}$

5. 소결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활정보시스템 DB에 입력된 자료를 자활사업 참여자별 총 참여기간 및 참여주기를 기준으로 단기일시,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참여유형 네 가지로 구분하고, 참여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경제적 특징, 참여사업의 제도적 특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및 자활사업 참여자별 첫 자활 일자리 대비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기준 이러한 특성에 종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총 113,748명의 참여자 중 대다수는 참여주기 1회, 총 참여기간 5년 미만의 단기일시 참여유형(72.3%)에 해당하였다. 재참여 유형은 참여주기 2회 이상 총 참여기간 5년 미만의 단기반복(24.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참여주기 2회 이상 총 참여기간 5년 이상의 장기반복(2.0%), 참여주기 1회 총 참여기간 5년 이상의 장기지속(1.5%) 순이었다.

자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참여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이혼이나 새터민 가구와 같이 당장 생계를 위한 소득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편견이나 구조적 장벽 등으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배경의 참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의 경우 처음으로 자활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 취·창업 경험을 가진 참여자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적고 여성, 저학력(초졸 및 중졸 이하), 사별, 노인부부 등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꾸준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자립성과금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에서 장기지속 참여유형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열악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을 통해 볼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후 자활현장과 관련된 곳이 아니어도 참여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기술을 익히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와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어느 참여유형이든 한 번 자활사업에 진입하면 적어도 1년 가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경제적 특성은 첫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의 경제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이 당장의 취·창업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취업 현장에서 여러 장벽을 경험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인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 큰 빈곤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구실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재참여 유형 중 적어도 1회 이상의 탈수급 후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반복 재참여 유형의 경우, 같은 반복 참여유형이라 하더라도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단기반복 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및 제도적 특성은 장기반복 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특성과 비슷하기보다 단기일시 참여유형 참여자들의 특성과 비슷하였다. 장기반복 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및 제도적 특성 역시 단기반복 참여유형보다는 장기지속 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및 제도적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과연 단기반복 참여유형과 장기반복 참여유형 두 그룹 간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해당 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지, 아니면 지금은 비록 7년간 수집된 DB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총 자활참여기간이 5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장기 참여자와 단기 참여자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두드러진 특성일 뿐 본 연구결과에서 단기반복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들도 총 자활참여기간이 길어지면 장기반복 참여유형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자활사업 재참여를 둘러싼 맥락적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참여자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재참여 실태 및 지원 방안을 분석할 것이다.

IV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자활사업 경험과 정책인식

1. 조사개요
2. 연구참여자 사례분석
3. 연구참여자 자활사업 재참여 경험 분석
4. 소결

IV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 자활사업 경험과 정책인식

1. 조사개요

1) 조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자와 장기지속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수행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의뢰를 통해 전국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반복참여자와 장기지속참여자 15명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는 질적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특정 주제 또는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Creswell, 2003). 연구진은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1대1 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1인당 인터뷰 시간은 약 90분~120분간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재참여 현황과 지원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연령, 동거가구원, 최종학력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 및 재참여 과정 전반에 대한 배경, 이유, 당시의 인식 및 느낌 등을 조사하였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한 상황과 종료 후 상황의 비교, 반복된 자활사업 참여의 의미, 향후 자활사업 지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연령, 교육수준 등의 기본적 특성을

문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터뷰 흐름에 따라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태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개인 신상을 구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표 IV-1〉 인터뷰 조사내용

구분	인터뷰 조사내용
일반적 사항	• 연령, 동거 가구원, 최종학력, 참여 중이 자활사업 현황 및 참여 횟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특성 등
자활사업 참여 과정	• 자활사업 참여 배경, 자활사업 종료 후 상황, 자활사업 재참여 배경, 재참여 인식 등
자활사업 참여와 종료 상황 비교	• 자활사업 반복 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일반노동시장 참여와의 비교 등
자활사업 의미	• 참여기간 및 참여횟수의 의미,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평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것 등
자활사업 지원방향	• 자활사업 재참여자 대상 정책 지원방향 또는 개선의견

2) 조사대상

심층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단기반복참여자’, ‘장기반복참여자’, ‘장기참여자’의 3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단기반복참여자는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미만이고 자활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다음 장기반복참여자는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자활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장기지속참여자는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자활사업에 1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의 전국 7개 시·도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단기반복참여자 6명, 장기반복참여자 7명, 장기지속참여자 2명으로 구성된다.

〈표 IV-2〉 인터뷰 조사대상 유형

유형	내용	참여자 수	참여자 소재지역
단기반복참여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미만이고 자활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명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장기반복참여자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자활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7명	인천, 대전, 경기, 전북, 강원
장기지속참여자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자활사업에 1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강원, 충남

인터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된다. 연령은 최소 25세부터 최대 65세까지 평균 51.7세이다. 최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형은 일반수급 5명, 조건부수급 4명, 자활특례 3명, 차상위 3명이다. 현재 수급유형은 일반수급 9명, 조건부수급 4명, 차상위 2명이다. 연구참여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졸업 이상 2명, 고등학교졸업 10명, 중학교졸업 2명, 초등학교 졸업 1명이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대체로 1명, 즉 1인 가구 형태로 나타났고, 배우자, 자녀 등 가구원과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는 8명이다.

〈표 IV-3〉 연구참여자 특성

유형	연구 참여자 구분	성	연령	최초 수급 유형	현재 수급 유형	학력	총 가구원수	자활사업 참여 경험 (GW : gateway 포함)	총 참여 기간
	1	남	43	차상위	조건부 수급	고졸	1 (미혼)	- 2022. 5 ~ 2022. 12 (GW: 4개월, 사업단 1개 경험) - 2023. 2 ~ 현재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2회, 1년 7개월
	2	여	65	조건부 수급	일반 수급	고졸	1 (사별)	- 2020. 9 ~ 2022. 7 (GW: 2개월, 사업단 3개 경험, 이사 종결) - 2022. 10 ~ 현재 (GW: 1개월, 사업단 2개 경험)	2회, 3년 2개월
	3	남	25	자활 특례	일반 수급	고졸	3 (미혼, 모, 여동생)	- 2017. 6 ~ 2018. 12 (GW: 40일, 사업단 1개 경험, 자활기업창업 종결) - 2019. 1 ~ 2021. 7 (자활기업, 본인희망 종결) - 2021. 10 ~ 현재 (GW: 12일, 사업단 1개 경험)	3회, 6년 4개월
단기 반복	4	남	44	차상위	차상위	대중 퇴	1 (미혼)	- 2019. 4 ~ 2020. 2 (GW: 1개월, 사업단 2개 경험, 기타 종결) - 2020. 7 ~ 2021. 12 (GW: 1개월, 사업단 2개 경험) - 2022. 5 ~ 현재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3회, 4년 1개월
	5	남	57	일반 수급	일반 수급	대졸	1 (별거)	- 2017. 7 ~ 2017. 10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개인사유 종결) - 2018. 1 ~ 2018. 7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사업단 종결) - 2018. 8 ~ 2019. 1 (GW: 1개월, 사업단 1개 경험, 조건불이행 종결) - 2021. 9 ~ 현재 (GW: 1개월, 사업단 1개 경험)	4회, 3년 9개월
	6	여	54	자활 특례	일반 수급	고졸	1 (미혼)	- 2016. 1 ~ 2017. 11 (사업단 1개 경험) - 2020. 7 ~ 2021. 5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 2021. 10 ~ 현재 (GW: 20일, 사업단 1개 경험)	3회, 4년 11개월
장기 반복	7	여	55	일반 수급	일반 수급	중퇴	4 (기혼, 배우자, 자녀2)	- 2016. 1 ~ 2016. 12 (사업단 2개 경험) - 2018. 5 ~ 2018. 7 (GW : 45일, 사업단배치 없음/건강) - 2020. 6 ~ 현재 (GW: 4개월, 사업단 2개 경험)	3회, 4년 10개월
	8	남	58	일반	조건부	고퇴	4	- 2016. 7 ~ 2021. 9	2회,

IV.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자활사업 경험과 정책인식

			수급	수급		(기혼, 배우자, 자녀2)	(GW: 75일, 사업단 2개 경험/실재 1개, 기간만료 종결) - 2021. 10 ~ 현재 (GW: 10일 18일 공백, 다른 사업단 배치, 사업단 1개 경험)	7년 6개월	
9	여	56	일반 수급	일반 수급	고졸	2 (기혼, 배우자)	- 2017. 2 ~ 2019. 4 (GW: 2개월, 사업단 3개 경험, 기타 종결) - 2019. 9 ~ 2022. 12 (GW: 28일, 사업단 3개 경험, 기간만료 종결) - 2022. 10 ~ 현재 (GW: 22일, 사업단 2개 경험)	3회, 5년 7개월	
10	여	41	조건부 수급	조건부 수급	고졸	2 (이혼, 자녀1)	- 2018. 4 ~ 2022. 5 (GW: 1개월, 사업단 3개 경험, 개인사유 종결) - 2022. 10 ~ 현재 (GW: 1개월, 사업단 2개 경험)	2회, 5년 5개월	
11	여	41	조건부 수급	조건부 수급	고졸	3 (이혼, 자녀2)	- 2016. 1 ~ 2016. 4 (사업단 1개 경험) - 2017. 9 ~ 현재 (GW: 4개월, 사업단 4개 경험)	2회, 6년 8개월	
12	여	52	조건부 수급	일반 수급	고졸	3 (이혼, 자녀2/1명가구 분리)	- 2018. 8 ~ 2018. 9 (GW : 2개월, 사업단 배치 없음/이사) - 2019. 2 ~ 현재 (GW: 2개월, 사업단 1개 경험)	2회, 5년 1개월	
13	여	57	일반 수급	일반 수급	고졸	1 (사별)	- 2011.04~2014.04 (사업단 1개 경험) - 2016.01 ~ 2018.11 (GW: 3개월, 사업단 1개 경험) - 2019.03 ~2019.06 (GW: 3개월, 지역센터변경) -2022.05 ~ 현재 (사업단 1개 경험)	4회, 8년	
장기 지속	14	남	63	자활 특례	일반 수급	전문 대졸	1 (이혼)	- 2016. 1 ~ 2018. 11 (사업단 2개 경험, 사업단 종결) - 2018. 11 ~ 현재 (GW: 1.5개월, 10일 공백, 같은 사업단 배치, 사업단 3개 경험/실질적으로 2개)	2회, 8년
	15	남	64	차상위	차상위	중졸	2 (이혼, 자녀1)	- 2016. 1 ~ 현재 (GW: 1개월, 사업단 5개 경험)	1회, 8년

3) 분석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자의 시간 흐름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특성 변화와 당시의 인식·느낌 등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즉시 필사하여 원자료로 만들었다. 이후 작성된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고, 연구진 간 회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요약하고 메모하여 질적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그리고 조직화된 질적 자료 내에서 각 사례 사이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는 주제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조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제공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이후 참여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문서의 형태로 참여자에게 제공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로부터 조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인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 도중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중단할 수도 있음을 공지하였다. 또 인터뷰 참여나 인터뷰 중단·철회로 인한 참여자의 불이익이 없고, 인터뷰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획득하였다(관리번호 e-IRB 2023-1331-002).

2. 연구참여자 사례분석

1) 연구참여자1 : 단기반복

연구참여자1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단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형태는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이다. 연구참여자1은 군대 제대 이후 25살부터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나서부터는 1인 가구로 지내오면서 식당 주방일, 시설 관리직, 은행 경비, 조경 일 등의 단순노무직을 꾸준히 하였다. 그러나 30대 후반부터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어려워졌고,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구청 공공일자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구청 공공일자리 신청과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신청으로 이어졌고, 공공일자리를 단기로 시작하였다. 이후 자활사업으로 연계되어 게이트웨이를 거쳐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였다. 참

여할 당시에는 공공일자리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자활사업 첫 진입 시 반찬, 도시락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과거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도시락과 반찬을 만드는 일을 4개월 정도 진행하였다. 4개월간 메인 주방업무를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단 내 참여자와의 업무분담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단에 무단결근을 하고, 조건 불이행 처리되었다.

조건 불이행 처리된 이후 3개월간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집 밖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당시 생계급여가 끊겼기 때문에 기존의 자활급여에서 받은 돈으로 지내왔다. 2월쯤 숨이 차고 심장이 별령거리며 병원을 찾았고, 심장 부정맥을 발견하여 수술을 진행했다. 가지고 있던 상해 및 실손보험이 있어서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후 생계가 어려워져서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시 게이트웨이를 2개월 거친 후 자전거 수리사업단에 배치되어 일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는 사업단은 이전 사업단에 비해 자립성과금이 7분의 1 수준이지만 일의 난이도가 낮고 사업단 내 동료 간의 사이도 나쁘지 않아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자전거 수리사업단에서는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며, 사업단 내에서 자전거 수리 1급 자격증도 따게 되어 자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자활사업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10만 원 납입하면 정부지원 30만 원을 지원받아 적금을 타서 자산을 형성하고 탈수급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탈수급 이후에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자활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업단 내 동료들 중 탈수급 이후에 바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2) 연구참여자2 : 단기반복

연구참여자2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단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생계급여)이다. 연구참여자2는 20년도에 코로나 19로 인해 아들과 동업하던 식당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코로나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센터의 공무원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65세 미만이었으며, 함께 거주하던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1인 가구였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다.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할 당시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40세에 사별을 하고 그 당시에 미성년 아이들과

함께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수급을 신청해 본 적도 없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였고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활사업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활동이라는 인식도 더해져서 불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첫 참여 당시 카페사업단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자영업 경험(피부샵, 제과 제빵,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였다. 당시 자활 사업단에서 일할 때 첫인상은 동료라는 인식보다는 모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이후 사업단 이동을 위해 복지도우미사업단이 1년밖에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복지도우미로 함께 일을 하였다. 복지도우미사업단은 기존 카페사업단에 비해 사회서비스형 급여를 받아서 자활급여도 적고, 성과급도 적었지만 사업단 내 동료들 간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았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지역이 다른 시군구였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형태는 유지된 채 새로 이사 한 곳에서 다시 자활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 사이 6개월 정도를 조건부 수급이 아닌 생계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사한 집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기존의 살던 곳으로 이사했고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게이트웨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같은 사업단이 아닌 빨래방 사업단으로 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시장형 사업단에 성과급이 많이 생기는 사업단으로의, 그리고 본인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배치하는 것을 원했지만 빈자리가 있는 성과급이 없는 사업단으로 배치가 되었다. 이때 사업단 내 시간제 일자리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과 종일 일자리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서, 함께 일하기가 어려웠고 근로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심적 어려움을 느꼈다. 사업단 내 동료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노동강도가 다소 높고,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도시락 및 반찬 사업단으로 변경을 요청해 시장형 사업단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이 일반노동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렵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65세의 나이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3) 연구참여자3 : 단기반복

연구참여자3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단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형태는 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3은 고등학교(디자인 전공)를 졸업한 이후, 학교에서 소개한 마트에서 일을 하였으나 일하는 곳에서 관리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커서 며칠 만에 그만두었다. 마트 일을 그만둔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두 달 하다가, 당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모의 권유로 2017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배송사업단에 참여하였고 배송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하여 택배사업을 주로 하게 되었으며, 해당 자활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자활기업 참여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자활기업을 그만두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고, 돈도 모을 수 있어 좋았다 한다.

자활기업을 그만둔 후 약 2달 반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주로 시간으로 보냈다. 이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모아 둔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일해야 한다는 의욕이 강하지 않았다. 다른 계획이 없고 자활사업 참여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어 본인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연결되어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생이 학생이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활사업 재참여 후 게이트웨이를 40일 정도 거친 후 CU편의점 사업단에 배치되어 일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사업단에서 있다. 현재 참여하는 사업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업무는 야간에 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는 상태이다.

자활사업 2023년 8월에 청년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총액 20만 원)을 저축하고 있으며, 매월 100만 원 정도를 따로 모으고 있다. 주택청약저축도 2~3만 원 정도 넣고 있는 상태로 청년통장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2026년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 엑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4) 연구참여자4: 단기반복

연구참여자4의 자활사업 참여 유형은 단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만 해당된다. 연구참여자4는 재학 중이던 대학을 중퇴한 이후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한 2019년 이전까지 제대로 된 근로 경험이 없었다. 즉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청년기 동안 일반노동시장에서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무기력 상태의 청년기를 지내다가 자활사업을 알고 참여한 이후부터 나름대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미혼 상태로 거주지 인근에 어머니가 살고, 어머니와는 독립된 거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어머니 역시 고령의 노인이지만 현재 세탁소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경제적 부양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어머니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미래에 대한 부담은 느끼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 전에는 대학 중퇴 이후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만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입은 사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면서 30대 중후반까지 계속 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활사업을 알게 되었고, 자신처럼 자격이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도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4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자활사업 재참여를 경험했다. 그동안 참여한 사업단의 내용은 베이커리, 연필 제작, 자전거 수리 등의 사업을 경험했고, 현재는 시장진입형 사업단 내 자전거 수리 기술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지는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의 반복된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종료한 이유는 사업단 내 타 참여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일하던 사업단 자체의 종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성인이 된 이후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따른 인간관계 상의 의사소통 한계, 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내재 역량 부재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반복된 자활사업 참여과정을 통해 현재 근무하는 자전거 수리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스스로가 평소 자전거에 대한 관심으로 기술을 배우는데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업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행사가 늘어나고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일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생겨나는 시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5) 연구참여자5: 단기반복

연구참여자5의 자활사업 참여 유형 역시 단기반복참여자다. 현재 만 57세로서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내,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다만 현재 자신만 현 거주지에 살고 있고, 다른 가족원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한 달에 주말 시간을 활용해 몇 차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가족원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로 4개 맞춤형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있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직접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소위 남 부럽지 않은 사회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리점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점장으로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고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현 거주지역에 와서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약 8년 동안 일을 했고, 이 시기에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알코올 중독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우연히도 고된 건설 현장 일과 매일의 술 때문이었다.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병원 직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소개해 준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의 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5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자활사업 사업단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참여한 사업단에는 자전거 수리 사업, 요양보호사 등 돌봄 사업 등이며 현재는 차량 관리 사업단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참여 중인 사업단에서 근무한 지는 약 2년 정도가 지났다. 자활사업의 반복 참여가 이뤄진 이유로는 진입 초기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알코올 중독의 재발로 인한 건강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 과정에서 중독통합관리센터의 관심과 재활치료 및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재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동하여 현재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상담심리학을 복수전공하여 3학년까지 공부를 마친 상황이다. 졸업 후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여 향후 노년에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다. 특히 현재 사업단의 내용인 차량 관리 업무는 이전에 자신이 하던 자동차 판매 업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단이 종료되면 시장에 진출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현재 자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급자격을 탈피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6) 연구참여자6: 단기반복

연구참여자6은 단기반복참여자로서 54세의 여성이다. 현재 함께 사는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해 고령의 부모님까지 총 3명이다.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딸은 성장하여 다른 지역에서 대학생살을 하는 중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이다. 연구참여자6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한 것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면서부터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주부로서 생활하였다.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혼하게 되면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 첫 사업단의 내용은 복지간병사업단으로서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약 1년 동안의 복지간병사업단 활동을 마친 후 노인요양원에 취업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획득한 자격증과 경력을 활용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안 되는 약 11개월간 취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간 취업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임금 수준이 자활사업에 비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이 본인이 기대한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요양원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관계 형성의 어려움, 요양원 동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 형성 어려움, 노인돌봄에 따른 신체적 건강 악화, 비위생적 돌봄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는 연구참여자6이 다시 자활사업으로 복귀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양원의 업무보다는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들이 더 쉽고 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직접 기존에 참여했던 지역자활센터에 연락하여 자활사업 재참여를 결정하였다. 현재 수행하는 자활사업단의 내용은 지역 특산물을 손질하여 판매용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해당 사업단을 선택한 배경에는 사업단 내에 자신이 아는 관계의 지인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활사업 이외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즉 탈수급에 대한 기대나 의지는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7) 연구참여자7 : 장기반복

연구참여자7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조건부수급자이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7은 2016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2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가 2018년 5월에 게이트웨이에 다시 참여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단 배치 없이 종료 처리되었다. 그 후 2020년 6월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였고, 현재 총 3회에 걸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무료간병서비스 사업단, 물품 포장사업단에 참여하였고, 현재 임가공사업단에 참여 중이다. 연구참여자7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단순근로만 가능하며, 배우자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일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재혼 후 낳은 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은 현재 같이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경제적인 보탬을 주지는 않는 상태이다. 다른 아들 하나는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보탬을 주지는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구참여자7은 2016년에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2018년 일반수급자로 전환되었지만,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필요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당뇨)가 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여건(낮은 학력)이어서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조건으로 자활사업만이 유일한 일자리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건강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였다.

8) 연구참여자8 : 장기반복

연구참여자8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조건부수급자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현재 배우자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8은 가정편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봉제공장에서 다림질 일을 하였지만 공장 폐업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고, 2015년에 동사무소에 수급신청을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게 되었다. 2015년에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보았으며, 대형지게차 면허도 취득하였지만 사는 지역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봉제산업의 쇠퇴

로 이전 경험을 살린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2016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 주거복지사업단에서 도배를 배워서 참여하였으나 해당 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한 이후 사업단이 해체되어 커뮤니티사업단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0월에 참여기간 제한으로 자활사업을 그만두었다. 자활기업 창업 당시 같이 할 것을 제안 받았지만 자활기업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를 그만둔 후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고, 자활사업에 재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활사업 참여 종료 후 약 50일 후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여 게이트웨이를 거친 후 현재 참여 중인 다회용기세척사업단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배우자도 자활사업에 짧은 기간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아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에 반장 역할을 맡기도 하였지만 언어 장애(말더듬)가 있어 어려움이 많이 현재 팀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하는 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하는 일은 봉제일(다림질)이기에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운전면허를 활용한 일도 하고 싶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8은 그동안 주어진 여건에 취업을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참여했던 사업단에 배운 기술(도배)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단(도배사업단)이 생기면 그 곳에 일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9) 연구참여자9 : 장기반복

연구참여자9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일 반수급자(본인은 조건부수급자로 인지)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9는 일본 출신으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현재 자녀 모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연구참여자9가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9는 호텔 청소원으로 일하였으나 일하다 손목을 다쳐 몸을 쓰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이후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원(일본어)으로 일하였지만, 당시 자녀가 어려서 일을 그만두고 자녀돌봄에 집중하였다. 자녀가 큰

후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할 때 게이트웨이와 인큐베이팅사업단을 거쳐 CU편의점사업단에서 일하였지만 출근의 어려움(택시 이용이나 배우자 도움)과 참여자 사이의 갈등으로 그만두고 다른 사업단(수산물가공)에 배치되었지만 바로 그만두었다. 자활사업단을 그만둔 후 5개월의 기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원에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기도 하였지만 취업하기 어려웠다.

당시 남편이 아파서 의료급여가 필요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전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이 와서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다시 참여할 자활사업에서 도우미사업단(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업무, 3년)을 거쳐 도시락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시 참여한 사업은 익숙한 사람이 있고 익숙한 일을 할 수 있어 편안했다. 도우미사업단과 도시락사업단에서 약 4년 2개월 정도 일하였으나 참여기간이 종료되어 그만두었고, 그만둔 지 1개월이 조금 지난 후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여 같은 사업단에 배치되어 2023년 3월부터 현재 사업단 반장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게이트웨이 2023년 2월).

현재 사업단에서 반장 수당(약 월 1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일에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56세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10) 연구참여자10: 장기반복

연구참여자10은 41세의 여성으로 장기반복참여자다. 연구참여자10의 연령대는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비교적 젊은 연령에 해당된다. 가족구성은 본인을 포함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딸 1명이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이며, 졸업 후 섬유회사에서 일반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그러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자녀 양육에 전담하였다. 이후 남편과 이혼하였고, 지역 내 모자원에 입소까지 하였다. 해당 시설의 직원이 지역자활센터를 소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현재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다.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한 시점은 2015년 정도로 당시에는 현재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센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첫 자활사업의 내용은 장애인 세탁서비스사업으로 약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참여하였다. 첫 사업단을 종료한 주된 이

유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질병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고, 어린 딸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빨리 재참여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부터는 현재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한 사업은 연필 포장, 화분·키링 만들기 등이다. 과거 장애인 선택서비스사업과 비교 하면 위생이나 난이도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10은 자신의 건강 상태 때문에 민간의 일반노동시장 참여를 도전하기 어려워했다. 또 자신이 특별한 자격증, 전문기술 등이 없어 자활사업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나이가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딸을 양육할 시간을 확보해야 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자활사업 참여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자활사업 반복 참여 결정은 모두 자신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자신의 나이가 젊고 향후 더 오랜 기간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어린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로서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회인(직업 측면에서)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즉 현재 수입 확보의 수단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최선이라는 생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탈수급 또는 자활사업 참여 사이의 딜레마가 있었다.

11) 연구참여자11: 장기반복

연구참여자11는 41세의 여성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상태는 조건부수급자이다. 연구참여자11은 현재 아들(17세)과 딸(1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이며, 현재 부모님과 별거 중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일부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20대 중반에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아들이 7살 때 이혼하여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였다. 이혼 후에는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하여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등)와 육아를 병행했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지역자활센터를 안내해 주어 지금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시작하였다.

자활사업 첫 사업단은 자전거 수리 및 세척사업에 약 3년 동안 근무하였다. 첫 사업단이 종료됨에 따라 당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당시에 본인이 희망했던 사업 분야로 향후 커피숍 운영이라는 목표와 희망에 따라 시작한 분야였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취득했지만,

일반 카페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당시 나이가 36세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지 않았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전일제 근무 조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워 다시 자활사업에 재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자활사업의 내용은 유모차와 카시트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사업단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참여하였다. 두 번째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노인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 요청이 있어 세 번째로 진입하게 되었다. 센터에서 요청한 사업은 2차 참여 시와 같은 유모차-카시트 세척 업무로서, 당시 신규 사업단 내에 경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5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사업단에 다시 참여한 것이다. 연구참여자11은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 대해 아직 젊은 나이, 자녀 및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에 따라 일과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 하였다. 유모차-카시트 세척사업의 경쟁력이 낮아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았다. 일단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수급권을 유지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 현실적인 자립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12) 연구참여자12 : 장기반복

연구참여자12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본인은 조건부수급자로 인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12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경리로 일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았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경제적 도움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자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2는 이혼 후 중학생 아들과 취업한 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딸은 취업 후 가구분리를 하여(3년 전), 현재 행정적으로 가구원은 두 명이다.

이혼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고 정부의 생계지원과 가끔 하는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40대 초부터 자녀 부양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찾게 되었다. 당시 심장부정맥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한국정리수납협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지인이 있어 가끔 수납정리 일을 하였다. 이후 심장조형술을 받아 일반수급자에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되었고(49세), 2018년에 게이트웨이에 참여하였으나 이사하게 되어(전세매입 종료) 사업단 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활사업을 그만두었다(그 이

전에 실제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 경험도 있으나 행정기록 확인 안 됨). 실질적인 자활사업 종료는 사업단 업무의 불일치 문제였지만 마침 이사 시기와 맞아서 이사로 종료처리 되었다. 이사로 인해 한 해 동안 조건유예가 되었고 그 사이에 심장조형술을 받았다.

2019년 4월에 이사한 지역에서 새로 커뮤니티케어사업단(정리수납)에 참여하여(게이트웨이 2019년 2월)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 현재 사업단에서 반장 역할을 맡고 있고, 참여기간 종료 전까지 일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면 현재 사업단 경험을 살려 정리수납 관련 일을 할 계획이며, 정리수납 1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13) 연구참여자13 : 장기반복

연구참여자13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반복참여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이다. 연구참여자는 첫 자활사업을 참여할 당시에는 생계급여로 자활사업에 2011년부터 참여하였다. 당시 남편이 의료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했고, 새터민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복지도우미와 같이 학교 내 특수반 보조교사로 일하였다. 이후 이사를 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특수반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2014년 4월까지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급여를 받았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되어 소득이 생기자 수급자격이 상실되었고 2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2016년 아들이 산업체 대체복무를 가게 되었고 다시 차상위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4살에 교통사고로 복시(사물이 두 개로 보임)가 생겼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노동강도가 약한 사회서비스형의 위탁생산 사업단에 참여했다. 이후 아들이 공군으로 자원입대를 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9년 6월 이후 2022년 5월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후 부양하던 딸이 결혼하여 세대 분리하였고, 아들도 세대 분리를 하여 2022년 5월부터 자활사업 재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13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시장으로 자활사업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 밖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남편 사업체에서 발생한 빚을 갚아야 했고, 종신 보험금으로 전세를 얻었지만 사기를 당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 상태가 13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용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다.

연구참여자13은 자활사업 종료 이후 공공일자리나 장애인 활동보조와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청소와 돌봄 등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활사업 종료 이후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그 이후의 자산형성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14) 연구참여자14 : 장기지속

연구참여자14의 자활사업 참여유형은 장기지속참여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일반수급자(본인은 조건부수급자로 인지)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취업해서 일하다가 2010년경에 고향에 내려와서 자영업을 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 50대에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빚 보증 문제와 사업실패),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도 늘어나 막막한 상황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으며, 당시에 이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14는 현재 63세로 201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당시 50세), 그 사이에 두 번의 종료를 경험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두 번의 종료 사이에 다른 일을 한 경험은 없다.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활인큐베이팅, 특수교육보조, 주거복지사업단, 스텝세차사업단, 희망자원사업단, 도시락배달사업단 등에 참여하였다. 자활사업 초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고 다른 일을 찾지 않았고,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14는 현재까지도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일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도 안 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는 안정적인 편이다.

본인이 운전할 수 있어 택배, 택시 등에서 일자리를 생각해보았지만 특별한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 기간동안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기도 하였지만, 탈수급하면 어려움이 커질 것 같아 몇 개월 만에 해지하였다. 탈수급을 하면 의료급여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현재까지도 빚이 남아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막막함이 크고(은행 빚, 개인 빚), 수급비 통장은 있지만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자신이 취업하든 자활사업에 참여하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일 뿐이라는 무기력이 심하다. 빚으로 인해 개인파산도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파산 신청을 할 때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걱정이 많았다.

15) 연구참여자15: 장기지속

연구참여자15는 64세의 남성으로 장기지속참여자이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는 차상위계층이다. 아내와는 오래전 이혼했고 이후 본인이 아들을 직접 양육하였다. 당시 아들이 조기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등 많은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들은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숙박업체를 관리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였다.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원래 건설회사 근무 중 IMF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아였던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못했고, 단기 아르바이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시청 공무원을 연결하여 자활사업을 소개받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자활사업단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전기 설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 두 번째는 종이 가방을 제작하는 사업, 세 번째는 지역 특산 식품을 손질하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이다. 오랜 기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 및 갈등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업무량과 난이도 수준이 일반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을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성인이 된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부족한 수입을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훈련하게 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참여자15는 현재 64세로 곧 65세에 진입하게 된다. 자신의 나이와 신체적 건강상태, 성인이 된 아들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자활의지나 탈수급 의지는 젊은 연령대의 참여자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가능하다면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등 소득보장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참여자 자활사업 재참여 경험 분석

1) 자활사업 참여·재참여 과정

(1) 첫 자활사업 참여 상황(배경)

① 갑작스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 또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이다. 이때 관계 단절의 세부 내용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사별),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 가구원의 건강상태 악화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25세라는 젊은 나이부터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이후 1인 가구로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 남편의 의료사고 사망에 따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자활사업 참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그동안 가정 내 주요 경제활동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후, 자신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까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편이 갑자기 맹장에서 대장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니까 제가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그러고 남편이 종신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종신보험이 8천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전세를 얻었어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남편도 일단 돌아가시고 해서. 그랬는데 양복 입은 5명이 동사무소서 왔다고 그래서 양복 입고 동사무소서 왔을리가 하면서도 문을 열었더니 5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캐피탈에서 왔다고.” (연구참여자13)

주소득자의 사망 이외에도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소득의 감소·상실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공교롭게도 해당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전에는 주로 남성 배우자에게 가정의 경제활동을 의존하다가, 이혼 이후 자신이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이혼 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까지 홀로 맡게 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커진 사례들이다.

“이혼 후에 친정 쪽으로 내려와서 그냥 한부모로만 지내다가 아기를 케어하면서 일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애기 유치원 퇴원 시간도 있고 아침에 데려다줘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게 너무 버거워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여쭙봤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원받을 게 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활센터를 얘기해주더라고요.” (연구참여자11)

“제가 가장이죠. (중략) 처음에 배치됐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만으로가 아니라 49살이었던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만으로 따지니까 47살 됐겠네요. 47살에 처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그냥 기운이 빠져 계시는 것 같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으쌰으쌰 하고 왔죠.” (연구참여자12)

마지막은 배우자 등 주소득자의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경제적 수입 확보 필요에 따른 배경이다. 이들은 배우자의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질병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 또 참여자 자신의 질병, 사고, 부상 등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일자리 확보 어려움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

“(남편이) 특별히 일은. 이게 제가 자활참여하고 1년 있다가. 1년 안 됐을 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할 수 있는 걸 좀 했어요. 이렇게 박스 줍거나 그런 거 하고. 예전에 펑크수리를 했었거든요 타이어. 그런 걸 조금 누가 불러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은 못하다 보니까. 생계 가장은 저 같아요” (연구참여자9)

② 실업·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함

다음 두 번째 자활사업 참여 상황 및 배경은 연구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했던 직장으로부터의 실업 또는 사업 실패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소득 상실 시점은 우리나라의 두 차례 경제위기인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점과 맞물리는 상황에 있었다. 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업 운영의 어려움 상황도 발견되었다. 한편 이들의 경제적 소득상실은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실업과 사업 실패 문제는 배우자와의 이혼, 자녀의 건강문제(예: 조기 출산에 따른 인큐베이터 치료 비용)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자활사업의 참여로 평가된다. 다만 특별하게도 연구참여자5는 실직과 사업 실패의 어려움 중에서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별거의 형태로서, 주말에는 가족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 사례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족관계 특성은 향후 해당 연구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활의지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 대리점을 잘 했죠. 판매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했는데 직원 2명이 중국에 있다가 그때 당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저기였거든요. 저기 중고차 매매상들하고 해 갖고. 그거를 한 1년 가까이를 한 달에 한 두 대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으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중국에 법인에서 판매도 안 된 차가 여기 돌아다닌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냐 역으로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토탈 따져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연구참여자5)

③ 일반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

첫 자활사업 참여상황의 마지막 유형은 연구참여자들의 일반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이다. 이들이 일반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된 세부 배경에는 취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 부재(스펙 부족), 관련 교육경험의 부족, 인간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갈등스트레스,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 및 관심의 부족과 무기력한 상태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직장 내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이후 자활사업 참여 중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 동료 직원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역량의 한계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트(일 했었는데). 저희가 특성화고잖아요. 특성화고에서 일자리 주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사회초년생이라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4일 만에 그만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3)

또 개인의 교육수준, 경력, 자격사항, 전문기술 보유 등 스펙 차원에서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에 현실적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본 연구참여자 15명 중 (전문)대학졸업자는 2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기 근로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였다. 이는 장기간의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은 자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은) 거의 안 했죠. 원래 자활하는 것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자활할 때는 뭐 한 달에 그때 50인가. 50만 원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자활은 그냥 물어보면 그냥 다른 일

을 알바나 뭐 어떤 걸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뭘 하든지 스펙을 많이 보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스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경력직 그런 사람만 위주로 알바나 정식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뭘 하려고 해도 스펙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가지고.” (연구참여자4)

(2) 자활사업 종료 이유

① 사업단 내 동료와의 갈등에 직면함

본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도출된 자활사업을 종료하게 된 이유(배경) 중 공통으로 도출된 내용은 사업단 내 동료들과의 갈등 문제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점, 자활사업 참여 이전 일반노동시장의 직장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근로의지 등이 약한 무기력 상태의 참여자들이 참여한다는 점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역량 등의 부재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극단적으로 사업단 참여를 중단하는 결정 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 안에 선생님들 간에 좀 많이 다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관계는 좋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하고 싸울 일도 없었고.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말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두고 나간다고.” (연구참여자4)

한편 동료와의 갈등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단 내 동료 간 관계가 좋을수록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와 만족도는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연구참여자는 오히려 자활사업 종료 후 참여했던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직장 내 인관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다시 자활사업으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즉 사업단 내에 자신이 잘 알고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인의 여부가 자활사업 재참여 및 사업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솔직히 친구도 여기서 일하고 그게 많이 작용을 했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나를 것 같다. 그리고 친구도 권유를 하고.” (연구참여자6)

② 예상치 못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함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연구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악화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건강문제의 세부 내용에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업무 수행 및 업무 과중에 따른 신체적 건강의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자활사업 종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복된 신체활동에 따른 요통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 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는 총처럼 생겼어요. 이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애를 자꾸 이렇게 세척을 하고 무거운 카시트랑 유모차를 들다 보니까 제 손목이랑. 손목은 터널 증후군이 걸리고 목이랑 허리는 디스크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연구참여자11)

또 자활사업 참여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자활사업 종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알코올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일의 정기적인 출퇴근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추후 중독통합관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재활치료 및 훈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즉 정신적·정서적 자활이 함께 병행됨에 따라 경제적 자활사업 역시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 개인적인 마음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좀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 마디로 차 잘 팔고 잘 나가고 그렇게 벌던 놈이 여기 와서 내가 뭘짓거리를 하고 있나. 자괴감이죠. 그리고 자책. (중략)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허송생활을 한 거죠 (중략) 거기서(정신재활시설)도 도움을 많이 줬죠. 진짜. 거기 있으면서도 여기 일 나왔으니까요. 거기 생활하면서 일하다가 나중에 나온 거죠.” (연구참여자5)

한편 자활사업의 참여와는 별개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질병(예: 암으로 인한 항암치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자활사업 종료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근로보다는 치료를 우선으로 선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몰랐는데 배에 물도 차고 복수에 물도 차고 자궁에 혹도 있었고. 커지는 상황이라서. 누가 보면 임신한 정도로 커져가지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연구참여자10)

③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요인들

마지막 자활사업 종료 이유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 요인들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단 배치, 개인 사정에 의한 주거지 이사에 따른 종료, 자신이 참여한 자활사업단의 해체·종결, 가구원(예: 자녀)의 소득발생에 따른 수급자격의 상실 등이다.

이 중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단의 배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동기 및 자활 의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게 주목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현재 자신의 욕구와 적성이 잘 맞는 사업단에 배치되어 자활의지 및 탈수급의지가 높은 경우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제가 자동차 쪽에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사실 마음에 든게 아니라 저는 커피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략) 근데 자리가 없어서 거기로 갔는데 의외로 하다보니까 자동차 쪽 일이니까 어느 정도 적성에 맞더라고요. 세차하고 이런 건 처음 해봤지만. 지금이야 숙달되어서 잘하고. (중략) 그리고 자신이 좀 생겼죠.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법인 사업장으로 안 나가더라도 저는 자동차쪽으로 다시 가려고 생각해요. 다시 자신이 생겼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창업을 준비하는거죠.” (연구참여자5)

(3) 자활사업 재참여 과정

① 자활사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자활사업 재참여 주제의 첫 번째 하위범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 요인에 대한 것이다. 즉 자활사업 종료 후 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안이 자활사업 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 재참여를 결정한 요인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주제인 자활사업 종료의 이유와도 연결된다. 신체 건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질병 등 신체 건강의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치료 및 수술비용의 증가는 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자활사업 재참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종료에 따른 수입의 감소 및 상실이 어쩔 수 없이 자활사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녀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양립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하면서 제가 좀 살집이 있었어요. 제가 건강을 생각해야겠구나.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죽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선 운동을 먼저 했죠. 그 뒤로 1년 뒤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몸 관리부터 해야겠구나. (중략) (치료 이후 일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나 혼자 애기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일은 놓고 싶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10)

이외에도 자활사업 재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 등 교육수준, 신체 건강상태, 높은 연령대, 자신감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참여자 10의 재참여 사유와 상황은 이들이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배경)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즉 앞서 제시된 첫 번째 주제인 ‘첫 자활사업 참여 상황’에서 도출된 세 번째 하위주제인 ‘일반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자활사업 재참여 사유에 거의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벼룩시장 보면, 일하는 데가 쪽 나오는데 대개 쓰는 데가 2~30대만 써요. (중략) 내가 막상 사회 나가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연구참여자8)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여기 출근하는 것도 남편이 아침마다 깨워요 7시라고. 그러면 그때 또 주섬주섬해서 씻고. (일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7)

다만 연구참여자 10의 중 ‘장기지속참여자’의 경우에는 단기반복 및 장기반복 유형에 비해, 자활사업 재참여에 대한 인식에서 ‘희망의 부재’ 또는 ‘무기력함’ 등의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장기간의 자활사업참여 지속에 따른 만성화의 영향 또는 결과로도 추정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생각) 지금은 없어요. 좀 있으면 만 65세인데요. 내가 가봐야 얼마나 일할 수 있겠어요. (중략) (자활사업 종료 후에는)그 때는 어쩔 수 없죠. 여기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종일 아침에 정자 나왔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 그래야죠.” (참여자14)

② 재참여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음

다음 하위범주는 자활사업 재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10들이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과정, 사업단에 배치될 때 지역자활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나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

이나 관심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사업단 배치, 자신이 원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로의 사업단 배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신 기존 센터와 사업단 내 실무자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 탈수급 등의 전반적인 자활의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와서 새로운 사업단. (이전 사업단 동료들이)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재주가 있다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는 낚시 바늘 그런 거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들어오라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들어오라고 하는 게 어디냐. 나는 그냥 마음 그냥. 고맙잖아 이러면서 그때는 3명밖에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다시 들어왔었던 거예요.” (연구참여자9)

“(해당 사업단에 자신이 원해서 참여했는지?)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만기 채우고 종료할 때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신입들이다 보니까. (중략) 그런 거를 다 알려줬는데 완전히 숙지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5년 동안 그거를 해왔으니까. (자활사업 종료 후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솔직히 지금은 막막해요.” (연구참여자11)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해야 함

세 번째 자활사업 재참여의 하위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의 필요성이다. 이들 연구참여자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을 가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가진 경우로서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현재의 경제적 안정감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성적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을 지향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면서 동시에 매달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근데 (동생이) 성인될 때까지는 수급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참여자3)

“그거 안 받고 나간다 하면 얼마든 노동하든지 여기보다 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거를 돈 받았다 해서 만약에 또 저번에도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계산이 2천 얼마더라고요.” (연구참여자9)

“단지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활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애들을 편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수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연구참여자11)

④ 일반노동시장의 장벽을 경험함

본 연구의 참여자 유형 중 단기반복 및 장기반복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종료와 재참여를 반복한 집단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노동시장 취업의 경험이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 중 한 연구참여자(11)는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종료 후 요양원에 취업하여 약 11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자활사업단의 근로환경과 비교할 때 일반노동시장의 업무난이도와 요구수준은 매우 높았다. 특히 위계적 상하관계에 기반한 인간관계와 갈등 상황 해결의 어려움은 일반노동시장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비록 급여수준이 자활사업 임금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단 후배로 들어갔으니까 따라 다니는 거 그게 싫어서 그만뒀어요. 요양원에서 내가 케어하고 치매환자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진짜 더럽게 똥오줌 막 싸놓는 거를 제가 그걸 다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걸 해보자 해서 자활로 다시 들어왔죠.” (연구참여자6)

⑤ 주변인의 상반된 반응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재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동료 참여자의 경우 기존 사업단에서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 다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기술한 것처럼 사업단 내 인간관계 이슈는 자활사업 종료의 대표 이유인 동시에 재참여 결정의 긍정적 동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참여 후 사업단 동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관계 형성은 연구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 등 주변인의 경우 나의 배우자, 부모가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고 소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 재참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 고된 노동에 따른 신체 건강 악화에 대한 염려, 걱정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그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애들은 엄마가 쉬는 건 너무 좋은데 엄마가 두 달 쉬는 동안 애들도 힘들었잖아요. 쫓돌리다 보니까. 그 몇십만원이라는 게 애들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그냥 다시 일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애들은 좋아했어. 엄마 또 일하니까.” (연구참여자11)

한편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의견이 나타났지만, 일부 참여자는 센터 실무자의 다소 차갑고 회의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는 반복된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센터 실무자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고정관념의 형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실무자가 조금 더 따뜻한 태도와 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의 반응 역시 약간 불친절하고 쌀쌀맞다는 느낌,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냥 많은 분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많이 차요. 여기 차요 엄청. (다른 분들 은?) 다 그렇게 느껴요.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차요. 그게 보여요. 너네는 수급자니까 뭐니까. 좀 약간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10)

“물론 그게 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지만 주민센터 온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들이 하는데,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바로 구청으로 연락하라 그러더라고요.”(연구참여자2)

“제가 여간해서는 그런 느낌을 안 받는데 그분(센터 직원)은 거기 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게이트 교육받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2주째 되는데 그분이 시선이 영 아니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연구참여자13)

〈표 IV-4〉 자활사업 참여·재참여 과정 주제분석

주제	하위범주	내용
첫 자활사업 참여 상황(배경)	갑작스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	기존 주 소득자의 사망(사별),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 가구원의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상실
	실업·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함	자활사업 참여 이전 직장의 실직, 사업실패, 이는 이혼, 자녀 건강문제 등에 더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연결
	일반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	취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자격 등 스펙 부족, 교육경험 부족, 인간관계 갈등·스트레스, 무기력감 등에 의한 어려움
자활사업 종료 이유	사업단 내 동료와의 갈등에 직면함	자활사업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및 역량 부족,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에 의한 종료
	예상치 못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함	자활사업 업무 수행 및 과중에 따른 신체 건강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급작스러운 질병 발생에 따른 종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요인들	원치 않는 사업단 배치, 주거지 이사, 사업단 해체, 가구원 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로 인한 종료
자활사업 재참여 과정	자활사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자활사업 종료 이유와 연결. 자활사업 종료 후 건강문제 지속, 자녀양육 책임 등으로 소득상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참여
	재참여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음	자활사업에 재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체계적인 절차보다 사업단 내 인간관계 등 부차적 요인의 영향이 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해야 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가 최선의 대안
	일반노동시장의 장벽을 경험함	자활사업 종료 후 일반노동시장의 높은 업무난이도, 대인관계 등 부적응에 따른 자활사업 재참여
	주변인의 상반된 반응을 느낌	동료참여·센터실무자 등 주변인의 반응은 대체로 지지적. 가족의 경우 양가감정 발생. 몇몇 참여자는 센터 및 공무원의 차가운 태도를 느낌

2) 자활사업 참여 상황과 종료 후 상황 비교

(1) 자활사업 참여의 긍정적 부분

① 정기적 수입 확보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인식한 긍정적 영향 첫 번째는 정기적인 수입 확보에 따른 경제적 생활의 안정이다. 앞서 첫 자활사업 참여 상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 직전까지 실업, 사업 실패, 부채, 가족해체, 자녀돌봄 및 부양, 건강 문제 등에 따른 극심한 경제적 고통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수입은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일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적금도 조금씩 그나마 할 수 있고. 좀 안정감 느끼죠.” (연구참여자1)

“계속 일하다 보니까 꾸준한 수입도 생기고. 그래서 손을 어머님에게 빌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4)

자활사업 참여는 또한 가족 또는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제시된 경제적 생활의 안정 효과에 따른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통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자녀 등 가족원 또는 친구로부터의 신뢰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자활사업 참여 이후에는 연구참여자의 ‘일하는 모습’ 자체가 주변인과의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 후)정말 관계가 제가 이쪽 일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너무 좋아졌어요. 인간관계. 가족서부터 친구들, 사회에서 내가 거래했던 사람들도 제가 만나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관계가 다 정말. 다들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졌어요.” (연구참여자5)

② 취창업에 필요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학습함

다음 두 번째 하위범주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전보다 더 나은 생활습관과 삶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활사업단 출퇴근을 통해 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형성할 수 있게 된 점, 소정의 월급을 벌어서 생계유지를 위해 알뜰하고 검소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점, 술을 줄이게 된 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과의 인간관계 구축 및 상호작용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업무 기술 등을 학습한 점,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심 등을 기를 수 있게 된 점 등을 제시하였다.

“택배는 물류랑 관련된 것. 물류 쪽 일도 알아볼 수 있고. 편의점은 포스니까. 발주하는 컴퓨터 관련 직종 들어가거나 그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편의점 봐도 여러 사람 만나니까, 손님들 오니까 고객 관리 경험.” (연구참여자3)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과의 성격, 그 사람들의 행동,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폭이 넓어졌죠. 그전에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연구참여자4)

“그때는 어차피 저는 술이라는 거에 빠져 있을 때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것 자체, 생각도 안 하고 생활을 한 거고요. 그냥 나가서 돈 좀. 그냥 수급비 받는 것보다는 나오니까. 그 배는 받으니까. 그 받는 만큼 더벌로 받으니까 나가자. 나가면 그래도 좀 더 받지 않나. 그땐 그 생각이었어. 근데 그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렇게 확 오는 것도 있죠. 내가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못 버터?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참여자5)

③ 자활에 대한 기대가 생김

자활사업 참여 긍정적 변화의 세 번째 하위범주는 연구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기대이다. 이는 참여자의 탈수급에 대한 희망 또는 자활의지 등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종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기회의 보장(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 전공 등), 자립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의 취득(도배기술, 영양보호사, 정리수납 자격증 등), 더 나아가 일반노동시장의 취창업 기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병사업단에서의 경력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자활사업 종료 후 요양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죠. 왜냐면 일단은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드릴 수가 있죠. 금액 차이. 금액에서 다른 데 10만 원 받을 거 우리는 한 8만 원. 그런 메리트가 있죠. 가격 경쟁력이 있죠.” (연구참여자5)

“저거를 저 기술을 배우면 나이 먹어서까지 괜찮겠다. 그런 사업단들이 있는데. 올클린이라고 건물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방역 같은 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업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방역같이 그런 거 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런 사업단도 있고.” (연구참여자11)

(2) 자활사업 참여의 한계

① 취·창업의 현실적 한계를 경험함

자활사업단의 운영 특성과 일반노동시장의 운영 특성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이미 기존 일반노동시장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예: 도배사업)이라서 자신이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한 경쟁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나타났다. 그나마 참여했던 사업단에서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보장되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들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새롭게 학습한 ‘무엇’이 없어 불안감이 더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밖에 나가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좋은 재료 쓰고.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면 망해요. 보조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쓰고 하니깐. 밖에 나와서 장사하면 망해요. (중략)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인건비 비싸죠. 월세 비싸죠. 여기는 집세 나가는 거 없죠. 인건비 나가는 거 없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창업하기가 힘들어요.” (연구참여자2)

“애를 열른 키워서 우리 시장 진입형으로 나가고. 시장 진입형에서 매출이 조금 더 좋으면은 자활 기업으로 나가서 내 가게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기대로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그러니까 제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좋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연구참여자11)

“네. 배움이 또 없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0)

또 현재 참여 중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것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정리수납 사업의 경우 최근 사회적 필요와 욕구가 높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양을 고려할 때 시장형사업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인지도는 엄청 높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기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님 분들은 실습 나왔다가도 실습 한 번 하고 기절해가지고 놀래서 가버리시죠. 그리고 서비스형이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니깐. 시장형도 아니고 시장형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지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 집들이 아니라 거의 다 많이 문제가 있는 집들이니까.” (연구참여자12)

② 꼬리표와 같은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

두 번째 자활사업 참여의 한계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추후 이들의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급자들로 구성된 자활사업단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 등이 향후 취창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마 자활이라는 그 단어가 일반 그런 거기에서는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시선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활이라는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활 좀 문제가 많거나 좀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인식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활 다녔다는 거를 일반 그런 일하는 곳에 가서 좀 보여주기에는 그쪽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 (연구참여자4)

“왜냐하면 자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제 사람들 인식이 수급자다 이런 인식. 애는 수급자야. 이유 있겠지. 쉽게 얘기해서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니까 저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③ 사업단 내 동료와의 관계 및 역량의 한계를 경험함

자활사업 참여의 한계 세 번째 하위범주는 기존 자활사업단 내부의 동료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단의 성공과 시장진입이라는 목표가 있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생산성,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동료 구성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기존 사업단 내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거나 업무역량이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의 목표를 포기하거나 동기가 약해지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방해요인은 같이 나갔을 때 지금처럼 일하면 같이 못 하겠거든요. 만약에 4명이 있는데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그때는 각자 월 매출에서 찢어 갖는 거 아니에요. n분의 1을 해야 하는데 타산이 안 맞거든요. 4명에서는. 그러면 그땐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정적인 거죠. 그때는 처야 되니까.” (연구참여자5)

“이게 정말 쪽 끝까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도 사업 계획서부터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뭐 하려면 하겠지만. 역시 그런 계속 같이 있다 보면 3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창업하려면. 딱 맞는 사람. 이게 주도권, 저는 주도적이 아니라서 뭐든지 도와주는 입장으로 맨날 되다 보니까 맨날 이게 저한테 다 제 일이 되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도권 갖고 있는 사람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남아 있는 저 맨날 일하고. 막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괜히 창업 뭔가 하겠다고 말 못하겠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기는 해요.” (연구참여자9)

④ 자활사업 반복·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됨

연구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반복 또는 장기간 참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활사업 종료 이후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의 실패, 한계를 경험하고 다시 자활사업에 돌아오는 경험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두려움, 자활의지 약화 등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반복 유형의 일부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 취창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장기반복·장기지속 유형에 비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어려움 등 상황이 반복되면, 자활사업 재참여 및 장기화 유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냥 저는 자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기반을 다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가지 못하

고 또다시 왔다는 것.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자활이 좀 일하다가 그거를 마련해주면 내가 스스로 나가서 발판 삼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게. 못하고 지금까지 자활에 있는다는 게 좀 그게 조금.” (연구참여자6)

“8년이라는 그 숫자가 좀 만성적으로 나를 계속 여기 있게 하는. 거의 10년은 기본적으로 계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묻어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0)

(3) 자활사업 참여와 일반노동시장 참여 경험의 차이

① 낮은 임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근무환경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활사업과 일반노동시장의 주된 차이는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강도 및 업무난이도 등에서 발견되었다. 임금수준은 당연히 일반노동시장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근무환경 자체는 자활사업이 더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활사업은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주요 업무 이외의 요구수준이 낮다. 반면 일반노동시장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반노동시장과 달리 자활사업은 정부 사업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다는 점도 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임금은 일반 시장이 시간당 수급이 높잖아요. 자신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활사업이 또 괜찮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또 일반 거기서도 돈 안 주고 막 그런다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이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건 자활 사업이라고 보죠.” (연구참여자4)

일반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자활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건강이 아프거나 특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연구참여자의 상황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필요시 조퇴, 반차, 휴가 등의 사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다른데(일반노동시장) 다니면서 뭐 병원가요 그러면서 빠지면 그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픈 사람들 일주러 병원 간다 그러면 조퇴도 되고 반차도 되고.” (연구참여자7)

“일반 회사를 다니면은 조퇴를 하거나 했을 때 조금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러긴한데

저희는 한 사업단에 저만 있는 게, 그 일을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고. 같이 아끼 엄마들 이다 보니까 이해들도 많이 해주고.” (연구참여자11)

일반노동시장과 비교되는 마지막 근무환경은 참여자의 역량 수준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일반노동시장에서는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지만, 자활사업에선 참여자를 다그치거나 해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게 맞는 일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일반 회사는 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속도를 못 내니까. 제가 눈이 두 개로 보 이니까 조금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저 짜르더라고요. 하루 아니 이틀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다음에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무개하고 일을 못하겠다.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는다. 여기서 밀리니까. 다음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책임자들도 그래서 안 되실 것 같다. 이곳은 뭐냐하면 그래도 그 선생님들한테 맞는 일을 또 주시기도 하고.” (연구참여자13)

② 사회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경험함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일반노동시장과 자활사업 참여 동안의 주변 사회관계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알려지기를 싫어서 숨기고 있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가 자신의 사회관계나 사회교류를 더 차단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오히려 자활사업 참여 후에 가족, 친구, 이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활 다닌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4)

“여기(자활사업단)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떳떳하게 제가 명함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연구참여자5)

직장 내 동료 간 사회관계 역시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동료 간 관계가 자활사업에서 더 좋았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활사업 종료 및 재참여의 주된 원인으로 동료와의 갈등 또는 사업단 내 동료 간 다툼, 갈등을 경험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자활사업 종료 이유’의 하위범주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또는 근로의욕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생각·태도 등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누구랑 말다툼 해 본 적도 없고. 동료들이 막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저도 그 동료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유연하게 잘 지냈어요.” (연구참여자6)

“왜냐하면 사업단에 갔을 때 그 첫날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교대하는 사람끼리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직장에서 그렇게 싸우는 장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깜짝 놀랐고. 여기가 도대체 뭐가.” (연구참여자9)

이 같은 자활사업단 내 동료 간 갈등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발견되었다. 즉 자활사업 내에서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만 모여 있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노동시장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하고 지지하는 사회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 어렵고 아프신 분들보다 사회를 나갔을 때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대화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대할 때는 오히려 더 말은 잘 통하기도 하고 다른 건 다 괜찮아. 이분들(자활사업 참여자)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 저 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본인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고. 근데 (일반노동시장의)사람은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13)

③ 자활사업 참여 이후 개인 역량이 변화함

연구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반노동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자격증, 자기계발의 기회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자활사업 이외의 일반노동시장에서는 단순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이 주된 내용이므로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특별한 성장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기술 및 자격증의 예시로는 자전거수리1급,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다. 또 자활사업 참여 이전 제대로 된 직장생활 경험이 없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도 인식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반복

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등 개인역량 증진을 위한 미래의 투자가 가능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가 스스로에 대한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기회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 사업단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그 다음에 지금 1급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그리고 또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졸업도 내년에 하고.” (연구참여자5)

전반적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자활사업에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된 부분을 언급했으나, 일부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와 개인역량 향상 간의 반비례 관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반복되고 장기적인 자활사업 참여가 자신을 현실에 정체시킨다는 느낌, 도태되는 느낌 등을 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좀 미래가 없다는 것. (중략) (원가를 배우기 위한)비용 부담도 내일키움카드인가 그거를 신청하면 저녁에 학원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일 끝나고 학원을 가기에는 제 몸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연구참여자11)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첫 번째 사업단 가서 빵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웠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어차피 기회가 세 번 있으니까 그 세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자신만의 노하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연구참여자4)

④ 긍정적·부정적 심리정서 상태가 공존함

자활사업과 일반노동시장 사이의 마지막 차이는 연구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것이다. 우선 자활사업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일반노동시장의 참여 경험 이 많지는 않다. 이에 따라 당시 심리·정서적 상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다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에 비해 자활사업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의 임금 및 보상체계에 따른 것으로, 일반노동시장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 및 보상이 다르지만, 자활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만 하더라도 사업단 내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심리·정서 상태는 반복된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결과로부터 기인할 것

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심리·정서 특성이 참여자로 하여금 자활사업의 틀을 벗어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도 추정된다.

“요양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있을 땐 제가 막내였으니까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면서 저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하고.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이외에도 자활사업을 반복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긍정적 사고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부끄러움, 수치심, 자존심의 상처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좀 제 자신도 자활 다니는 거 좀 창피하고 좀 그랬어요. 여기 일반 일하는 데도 아니고 이 자활이라는 게 좀. 그 자활이라는 글자가 인식이 좀 그래요. 처음에 여기를 모르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래 생활해보고 하다 보니까 딱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꾸준히 일하고 또 안정적인 또 그런 수입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편안이 있고.” (연구참여자4)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깨달은 게 지나간 거 생각해봤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거 생각해봤자 나만 힘들고.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좋게 받아들이면 나도 좋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성격 자체도.” (연구참여자5)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가 장기간 이뤄진 참여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자활사업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자신감의 하락, 불안감의 증가를 나타내기도 했다.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텐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불안한거죠. 불안, 초조.” (연구참여자8)

“약간 생활에 안정은 돼요. 자활 월급 얼마 안 돼도 혼자 먹고 살기엔 괜찮으니까. 생활에 안정은 되니까 괜찮아요. 그거 외에는 뭐. (중략) (자활사업 종료 후 일반노동시장의 취업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연구참여자14)

“글쎄 이 나이에 일자리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자활사업)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연구참여자15)

〈표 IV-5〉 자활사업 참여상황과 종료 후 상황 비교

주제	하위범주	내용
자활사업 참여의 긍정적 내용 (취·창업 도움)	정기적 수입 확보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느낌	정기적·고정적 수입 보장에 따른 생계 불안정 문제대응,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에 도움
	취·창업에 필요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학습함	규칙적인 출퇴근 생활습관 형성, 알뜰하고 검소한 소비생활 학습,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기술 학습, 인내심 증진 등
	자활에 대한 기대가 생김	탈수급에 대한 희망 또는 자활의지 등 심리·정서적 변화, 자활사업 종료 이후의 삶 준비를 위한 가시적 노력
자활사업 참여의 한계 (취·창업 방해)	취·창업의 현실적 한계를 경험함	자신이 참여했던 자활사업의 시장경쟁력 부족.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 부족
	꼬리표와 같은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고정 관념	자활사업 참여 경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활사업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신 등이 취·창업의 장벽으로 작용
	사업단 내 동료와의 관계 및 역량의 한계를 경험함	사업단 내 구성원 모두의 목표 공유 어려움, 구성원 간 업무역량의 편차 등으로 인한 취·창업 의지 약화
자활사업 참여와 일반노동 시장 참여 경험의 차이	자활사업 반복·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됨	자활사업 참여를 반복하거나, 장기 참여가 이뤄지면 일반노동시장 참여 의지 약화, 두려움, 자활의지 약화 등 부정적 영향
	낮은 임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근무환경	낮은 임금수준 대비 근로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유연한 근무환경, 개별 참여자에 대한 지지적 관리체계 전반에 만족
	사회관계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경험함	사회관계가 축소됨, 가족·친구 등 주변인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숨기고 차단함. 사업단 내 동료와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 사회관계가 좋아짐. 이전보다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관계가 개선됨
	자활사업 참여 이후 개인 역량이 변화함	일반노동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술, 자격증, 자기계발 기회 경험. 하지만 반복·장기간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현실 안주의 모습도 발견
	긍정적·부정적 심리정서 상태가 공존함	일반노동시장 대비 자신의 능력을 존중받는 느낌(자존감 향상), 긍정적 사고의 증가. 그러나 반복·장기간의 자활사업 참여는 자신감 하락, 불안감 증가를 가져오기도 함

3) 자활사업 반복참여와 장기참여에 대한 인식

(1)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

① 생애 가장 오래 일한 곳

대학을 중퇴하고 30대 후반까지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만 하다가 2019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총 3번의 반복 참여한 연구참여자4는 자활사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오래 지속한 일자리이다. 이는 생애과정에서 2년 2개월은 군대 생활보다 더 오래 한 곳으로 자활사업이 유일하다. 반복 참여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장기간 참여를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연구참여자4에게는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성과인 것이다.

“근데 제가 그전에는 길게 일하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활하면서 점점 길어져요 기간이. 제 나름대로는 군대 2년 2개월 그거 말고는 길게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4)

② 유일한 일자리 기회

연구참여자2는 현재 65세로 2020년에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일반수급자이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데 자신이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자활사업뿐이라고 한다. 일반수급자로 57세인 연구참여자13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을 하지 못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 단기반복참여자로 알코올 문제와 고립을 경험하고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어가 끊긴 적도 있었던 연구참여자1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폐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였다.

“나가면 그런 사람을 누가 써줘요. 안 써주죠. 요새 인건비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그런데 있지 못하고 또 오는 거고. 여긴 오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니까.” (연구참여자2)

“이게 종료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제가 이곳을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걸을 수 있고 손을 놀릴 수 있을 때. 제가 일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제가 일하는 거 있어서 수입을 얼마큼 벌으니까 그게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약간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선생님(참여자)도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이 몸 갖고 이 정신 갖고 사회 가서 어울리기 힘들다. 일하

기 힘들다.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낫두리처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하기는.” (연구참여자13)

(내가 아무 것도 안 했으면) “그럼 폐인 됐을 텐데요.” (연구참여자1)

③ 삶의 안정을 찾아주는 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생계에 도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반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어린 자녀와 아픈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자리이다. 이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는 일상생활의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활급여 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약간이나마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된다. 또한 금전적인 혜택이나 자녀 양육 시간의 확보가 아니더라도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11은 이 점이 자활사업이 장점이면서 자활사업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즉, 자활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스스로도 모순적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일할 수 있고 그동안 돈 벌고. 그동안 아이도 양육하고. 부모님도 같이 부담하고.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 월급이 적어도 그냥 여기서 평온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평탄하게 큰 변화 없이 평탄하게 지냈다는 것.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고 평탄하게 잘 지냈던 것.” (연구참여자6)

“어쨌든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의 업무가 있고 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참여자12)

“자활사업 참여할 때가 훨씬 낫죠. 급여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근로장려금.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교육을 취성때 교육을 받는 도중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신청이 안 돼요... (자활 의지를 좀 꺾는 저해하는 탈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활의 편안함. 그다음에 자활 사업에 재참여하는 게 자활의 의지. 소위 자활 탈수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모순적이지만.” (연구참여자11)

“제 마음적으로는 이 사업이 참 자활 사업이라는 게 사람들 관찮게 해줬구나. 마음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사업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해보겠죠.” (연구참여자15)

④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회

반복단기참여자인 연구참여자3과 연구참여자5는 처음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했다. 자활사업에 세 번 참여한 연구참여자5는 알코올중독이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재활치료와 훈련을 받아 알코올중독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5는 자활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변하였고 일을 열심히 하자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3도 반복참여 과정에서 자활사업에서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다시 들어오고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그것도 좀 영향을 줬죠 저한테. 그러다가 마음을 딱 먹고. 제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요. 마음을 이걸로 가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일을 더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생각 자체가... 근데 지금 이렇게 자활하면서 잘 생활하면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거예요 자신있게.” (연구참여자5)

“이때는 아무 생각없이 일하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 일단은 이 상황 겪고 나서 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여기서 나가서 생활을 해야 저도 따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었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돈 받고 탈수급하고 일자리 마련하고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 들었죠.” (연구참여자3)

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험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지만,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주변의 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자신의 문제나 잘못, 어려움에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처음에 여기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저는 용돈, 자기 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하는 식으로 들어오

게 됐는데. 나중에는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게 되고. 주변에 그런 뭐랄까. 시선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 그런 보는 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4)

“그래도 좋았던 점. 자활에 와서. 나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한 것).” (연구참여자8)

(2) 되돌아 온 자신의 모습

① 되돌아온 자신이 창피함

남편과 이혼 후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10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꼈고,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할 때 재참여 자체를 고민하였고 자신이 배우지 못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자활로 다시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였다. 65세로 자활사업 외에 찾을 수 있는 연구참여자2도 자활사업 참여가 부끄럽다고 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일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

“좀 창피했죠. 다시 온다는 것이. 근데 다시 또 온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배움이 없어서 다시 오게 된 것도 있어요. 배움만 좀 있었더라면.” (연구참여자10)

“난 여기 다니는 거 한마디로 창피해.” (연구참여자2)

“처음에는 좀 제 자신도 자활 다니는 거 좀 창피하고 좀 그랬어요. 여기 일반 일하는 데도 아니고 이 자활이라는 게 좀. 그 자활이라는 글자가 인식이 좀 그래요. 처음에 여기를 모르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래 생활해보고 하다 보니까 딱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꾸준하게 일하고 또 안정적인 또 그런 수입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편안이 있고.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연구참여자4)

② 열심히 살았지만 자활사업이 종착역

연구참여자8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봉제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2016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을 더듬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꺼리는데 최근에는 사업단 반장을 맡기도 하였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기 어려워 그만두기도 하였다. 자활사업이 미래를 준비 시간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열심히 살았지만 종착역이 자활사업 참여라는 것에 쓸쓸함을 느낀다 한다.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자활은 내게 있어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국엔 마지막 종착역인 자활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여기 자활에 왔잖아요. 나 역시도 마지막에는. 씁쓸하죠.” (연구참여자8)

“내가 결국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건 있어요.” (연구참여자6)

“원래는 자활이 좀 일하다가 그거를 마련해주면 일하는 걸 해주면 내가 내 스스로 나가서 발판 삼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못하고 지금까지 자활에 있다는 게 좀 그게 조금.” (연구참여자6)

③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음

본 연구에서 만난 연구참여자 15명 중 일반수급자가 9명이고 차상위계층이 2명으로 자활참여 최초 참여 이유가 무엇이었던 현재는 스스로의 의지와 필요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노력은 노력으로 보지 않거나 자활사업 참여자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기를 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그분들을 안 보고 똑같이 생각할까.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 그분들이랑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리고 그게 좀 그래요.” (연구참여자12)

④ 조건부수급자로서 숙제를 다함

이제 65세로 자활사업 종료가 예상되는 연구참여자2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일반수급자가 되었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종료가 예상되기에 자신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건부수급자로서 숙제를 다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수급자로 돌아가는데 일반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쵸? 그동안엔 혜택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다하는 게 조건부수급자였고. 노동을 한 거고. 아직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큰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연구참여자2)

⑤ 그저 일을 할 뿐

대부분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다. 그런 그들에게 자활사업은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기에 주어진 일을 할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일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 의미 없이 일했어요. 그냥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를 키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거였지. 의미를 갖고 일한 적은 없어요. 이 직업이 좋다 이 직업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의미보다 내가 해서 이걸 해야 만이 월급이 나오고 그런거였지.” (연구참여자6)

“지금은 생각없이 나가요. 아무생각 없어요. 출근 시간 되면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고... 지금도 뭐 별 재미도 없고. 근무할 땐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나아지는데 집에 가면 혼자 있잖아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연구참여자13)

“그럴 수도 있기가 하겠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 조금 기분도 나아지고 그런 건 있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활사업은) 내 생활에 도움을 주게끔 월급을 주는 것.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죠. 아니면 내 몸도 안 좋고 이런데 어디가서 수입이 있겠어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죠. 해봐야 내가 뭐. 어차피 자활에서 일하나 차압 들어 와 가지고 그 돈 받나. 뭐 내 손에 쥐어지는 건 비슷하겠더라고요.” (연구참여자14)

〈표 IV-6〉 자활사업 반복참여와 장기참여에 대한 인식

주제	하위범주	내용
안정적 일자리 기회	생애 가장 오래 일한 곳	불안정한 일만 계속, 생애 처음을 장기간 일한 경험
	유일한 일자리 기회	낮은 인적자본이나 알코올 등의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이 큼, 자신을 받아주는 곳 혹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자활사업뿐
	삶의 안정을 찾아주는 일	자활소득을 통한 금전적 안정과 양육시간 확보로 생활의 안정 가능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자활사업 반복참여를 통해 자유 경험, 일에 대한 태도 변화, 자신감 회복
	자신에 대한 긍정 평가의 경험	타인의 시선에 관심 가지게 됨, 자신의 긍정적 점 발견
되돌아온 자신의 모습	되돌아 온 자신이 창피함	배우지 못해 노동시장 취업 실패, 자활에 다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음, 일반 일과 자활 일은 다름
	열심히 살았지만 자활사업이 종착역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었으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함, 자격증 취득, 구직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종래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됨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음	자활사업 참여자는 다양한데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력을 보지 않음
	조건부수급자로서 다함	숙제를 자활사업 장기간 참여후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 자활사업 종료 도래,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라는 숙제를 마침
	그저 일을 할 뿐	일반노동시장 취업 실패, 자활사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음, 소득이 중요하기에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4) 자활 유인의 한계

(1) 자산형성지원의 명암

① 통장에는 가입했지만 탈수급은 걱정

자산형성지원제도, 일명 통장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 저축금(10~5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 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¹⁾ 통장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적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만, 탈수급 조건이 있기에 통장 가입 시점에 탈수급 가능성과 탈수급으로 인한 기초생활급여 상실 등을 생각하게 된다. 통장 가입을 결정할 때 탈수급을 하겠다는(해보겠다는) 결정을 하면 통장에 가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입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통장 만기 시 목돈이 생기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상이 생활비로 쓰거나 혹시 모를 지출을 대비하는 것 정도를 생각할 뿐이었다. 통장 가입자에게 저축의 목적과 재정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3년 있으면 적금 희망저축 그거 내가 10만 원씩 내면 나라에서 3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3년 부으면 천만 원 나라에서 보태줘서 적금 타면 탈수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거 타면 그때는 직장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각오는 하고 있죠. 1년 됐거든요.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돈 미리 조금이라도 모아놓고. 나중에 직장 또 구하려면 잘 안 구해지거든요. 그때 버텨야 되니까. 조금씩 저축도 더 하고.” (연구참여자1)

“제가 먼저 (엄마에게) 권유했어요. 그때 공고를 봐서 그때 엄마 나랑 같이 신청하자고 얘기드리고 같이 신청했어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결혼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소소하게 있었어요. 제가 뭘 배우고 추후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동생이 아프거나 할 때 그때 쓰려고 모아두고 있죠... 청년 있고. 청약 있고. 따로 은행 같은데 돈 넣고. 월 113만 원, 114만 원 정도...” (연구참여자3)

“제가 희망키움통장 지금 2025년 5월 만기인 것 같은데. 그때 그거를 받으려면 탈수급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어떻게 할 건지 결정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내가 뭘 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9)

- 1) 추가지원금: 생계 수급가구 청년 지원, 탈수급 장려 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 다양한 지원이 있다. 1)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이내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4)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5)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② 통장 가입하고 싶지만 의료급여가 필요함

통장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탈수급을 조건이 있기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목돈보다 의료급여 혜택이 더 절실하기에 가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입했다가도 해지하기도 하였다.

“탈수급 하면 다른 건 괜찮은데 의료비 부담이 많아 해약했어요. 몇 개월 넣다가 해약했어요.” (연구참여자13)

“근데 내가 지금 그걸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수급 탈퇴를 하나 천만 원 받고. 근데 우리가 약값이. 그게 무시 못 하거든. 병원비가.” (연구참여자7)

(2) 자활의지를 꺾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① 근로의지가 약한 사람의 부정적 영향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단순근로만 가능한 참여자가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성과도 낮아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에 연구참여자9는 근로미약자는 그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단으로 분리하여 참여시키고 의지가 높은 참여자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단에 배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데 이게 자활에 오는 사람들 대개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성향들이 강해요. 자기네 고집도 엄청 세고. 될 수 있으면 시간만 때우다가 가려고 하는 자활에 속해있는 사람들 그런 게 많죠. (그런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안 좋은 영향 미치죠. 근데 누가 일을 시키기 앞서 자기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누가 시키면 마지 못 해서 하지. 계속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자활에만 계속 참여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태해지죠.” (연구참여자8)

“이게 역시 그 사업단 내에서도 미약자라고 해서 되게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게, 근데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같이 이렇게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갈

등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분이 왔는데 이 사람 여기는 뭐 일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갈 만한 사업단이 없고. 그래도 조금은 수급자니까 뭐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팀에서 받아들였다. 근데 이 사람은 할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우리는 성과금이 없으니까.” (연구참여자9)

② 참여자 사이의 충돌이 자활의지를 꺾음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의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단 배치를 달리한다(보건복지부, 2023: 58~60). 지역자활센터는 주로 자활역량 45점 이상인 자가 참여하여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자활역량이 낮은 사람이 참여하여 사업단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안에서 참여자 사이에서 사업단 목표나 운영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내가 굳이 나서서 의견을 내고 열심히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 한다.

“(자활의지를) 꺾는 거는 사실 저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나는 어떻게든 하더라도 더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또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왜 굳이 일을 끌고 와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아무리 자활이라 해도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그거는 좀. 그런 거를 이중적인 걸 볼 때는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니들도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활 의지를 꺾죠. 그럴 때는.” (연구참여자5)

③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인 사업단 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자활사업 참여자는 사업단 팀장이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정한 규칙이나 사업내용을 전달받고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갑자기 사업단이 없어지거나 사업내용이 변해도 이를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참여자를 수동적 주체로 만든다는 비판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 역량 강화는 사업단 의사결정과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이는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센터 자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참여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거가. 그냥 어떤 식이나면 연말에 딱 펴놓고 이 사업단 몇 명이고 지출이 어떻게 나갔고 이만큼 벌었고 어떻게 그냥 그거 쪽 그것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짝. 사업단이 10개다. 그럼 10개 짝 써 있고. 인원이 몇 명 써 있고. 상반기 소득이 얼마였고. 하반기 얼마였고. 근데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기존에 있던 저보다 먼저 여기 있던 사람들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아 그러지 마. 3년 뒤엔 너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더 이상했어요.” (연구참여자12)

“말 못해요. 무슨 궁금한 걸 말해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궁금해서 물어본다. 글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러 와서 그걸 물어보고 또 다른 게 또 궁금해서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연구참여자12)

“어차피 이 사업단이 없어지니까 나는 일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일해봐라. 그러면 알겠다. 하겠다.” (연구참여자13)

(3) 참여기간 제한의 양면성

① 자립계획을 세우게 함

5년의 자활사업 제한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립계획에 자극이 된다고 하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자활사업 참여를 종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촉박함을 느끼고 취업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자립 계획 수립에 자극이 되지 않았다.

“일단은 5년 끝나고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라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들어오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냥 계속한다 해도 된다 이러면 이게 계획하는 데도 좀 지장이 오고. 지금이 괜찮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9)

“촉박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연구참여자3)

“(참여기간 5년 제한에 대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규칙 잘 정해놓은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일할 순 없으니까.” (연구참여자3)

② 젊은 사람에게서는 좋은 취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참여기간 제한은 젊은 층에게는 좋은 취지라고 평가하였다. 자활사업에 오래 참여하고 나이가 많은 참여자는 젊은 층이 자활사업에 오래 머무른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젊은 층의 자활사업 반복 참여는 이들의 자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참여기간 제한은) 어느 한편으로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사람이라면 너무 여기에 안주하면 딱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여기 자활에 있다보면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자활에 안주해있다 보면 자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특히 스물몇 살분이 안 됐는데 젊은 애들 간혹가다가 와요. 개네들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연구참여자8)

“그래서 어차피 나이 먹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연구참여자9)

“나는 여기에 왔을 땐 다 내 나이 또래 조건부수급자만 하는 게 자활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서 아파서도 오고 오더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와 가지고 한 번의 기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주 또 오고 또 오는지 몰랐 다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왜 여기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2)

③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함

자활사업 참여기간 제한은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북돋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주된 생각이었다. 이런 불안 속에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한 사람이 많기에 자신만이 오래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장기반복참여자인 연구참여자11은 참여기간 제한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못하게 되면 버겁지만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닌 수동적 수용의 자세였다. 이는 ‘기다려 줘야 한다’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순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기간이 엄청 그런 조건 없이 가면 너무 여기도 사실 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안일하게 안주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걸 계기로 일어서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3)

“자활에서 정말 진짜 무덤을 보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잠깐 이렇게 힘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운 내고. 그래 너네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라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정작 막상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더 다운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는 거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돌고 돌아야지 저 같은 힘든 사람도 와서 여기서 힘내서 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계속 있던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은 또 뭐 오갈 데 없고. 빠져줘야지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12)

(참여기한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조금 힘들고 조금 버겁기는 하겠죠.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단은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나가는 지출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언니들이랑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수급자예요. 생계비를 받아요. 나라에서는 너네가 생계비를 주면 밖에서 일을 해. 그리고 몇 년 안에 탈수급을 해. 대신 우리가 생계비를 줄게. 근데 단지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활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애들을 편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수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자활을 없애면은 이 도돌이표조차 안 돼서. 그래서 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을 데리고 자살하는 부모들. 애들을 버리고 가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계속 들었어요.” (연구참여자11)

④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님

자활사업 참여자 자신도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면 그나마 찾은 생활의 안정이 무너질 것이라 우려하였고, 연구참여자1은 이를 ‘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강한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곧 65세가 되어 자활사업 참여 종료가 예상되는 연구참여자2는 자활사업 참여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자활사업 이후 다른 일자리 연계 욕구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거는 5년이잖아요. 딱 5년 되면 그만 종료해야 되고. 다시 또 그러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싶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탈수급까지

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생활에는 도움이 된 거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됐죠.” (연구 참여자12)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당장 만약에 그만뒀는데 재참여가 안 되면. 그러면 범죄자 되는거죠. 동네 깡패되고 건달되고. 도둑질하다가 절도범되고. 재참여는 되어야지 그래도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차리고 일 하겠단 희망이 생기고 하는 거죠. 재참여 안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배고파봐요. 눈 뒤집히면 어떡해. 배는 고프지 돈은 없지. 사람이 악한 마음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연구 참여자1)

“그건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네. 입장이 달라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횡수하고 상관없이 연도를 나이가 앞으로는 65세 이후로는 뭐 먹고 살아. 아직 활동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건 연장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연령 더 늘려야 해요.” (연구참여자2)

〈표 IV-7〉 자활유인의 한계

주제	하위범주	내용
자산형성 지원의 명암	통장에는 가입했지만 탈수 급은 걱정	자산형성의 필요하지만 탈수급 조건으로 가입 보류 혹은 해지, 자산 활용계획 부재, 생활비성 지출계획 정도
	통장 가입하고 싶지만 의 료급여가 필요함	의료급여가 필요해서 통장가입 포기나 해지 경험
자활의지를 꺾는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근로의지가 약한 사람의 부정적 영향	근로의지가 미약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사업단 성과에 기여하지 못함, 참여의지와 역량에 따 른 사업단 배치 필요
	참여자 사이의 충돌이 자 활의지를 꺾음	사업단 목표와 운영목표 의견 충돌, 자활의지에 따라 다름,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참여기간 제한의 양면성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자 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사업단의 의사결정에 과정에 대해 모름, 결정된 사항만 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주체로 고착
	자립계획을 세우게 함	참여기간 제한이 있음으로써 종료 후 무엇을 할지 생각하 게 됨
	젊은 사람에게는 좋은 취 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젊은 층에게는 중요, 자활은 젊은 사 람이 오래 있을 곳이 못됨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함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일자리, 계속하고 싶지만 순환 필요, 하지만 기다려줘야 함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님	종료 후 자립하고 싶지만 가능성 낮음, 생활 안정성 무너질 우려 큼, 자활사업 참여기간 연장, 일자리 연계 필요

5) 반복참여자와 장기참여자의 취·창업 전망과 지원 방향

(1) 취·창업과 탈수급 가능성

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능성이 줄어들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탈수급이 가능할 것인지를 물었다. 장기반복참여자인 연구참여자가 9명과 연구참여자가 13명은 처음 자활사업 참여할 당시에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자활사업 참여하면서 나이가 들어 지금은 그나마 있던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한다. 즉, 자활사업 종료 후 나이트 자신을 받아 줄 곳은 없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일반 노동시장에서 중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중년층이나 준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불확실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50대 후반 60대 후반 이런 형님들은 65세까지잖아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오셔서 그런지. 나이가 저 같은 경우도 한살 한살 먹을수록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장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쓰려고 그러지. 어르신들한테 일 시키기가 좀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느끼는 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땐 아르바이트 직장도 잘 구해지고 그랬었는데 한살 한살 먹을수록 취직이 더 힘들어지더라. 그거는 내가 느껴요. 몸으로 체험했으니까요.” (연구참여자가 1)

“잘 사는 친구가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거 알고 나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서울에 강남,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제일 저희 받은 급여 혜택 그런 거 다 세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했을 때도 있고. 근데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우리 아저씨는 또 계속 병원 가야 하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한 그런 면은 있어요. 처음에는 오기 싫었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지 이런 거.” (연구참여자가 9)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씀드린 건데 일단 종료가 돼도 다시 재참여할 수 있는. 종료되면 끝난다고 누가 그러길래. 어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일하지.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랬거든요.” (연구참여자가 13)

“나이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 딱 데 가서 뭐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고 또 꺼리는 사람도 많고. 노가

다식으로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건설회사 있는데도, 많이 축소가 돼요 사람들이.” (연구참여자15)

②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취업이나 자립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막막함’이고 ‘초조’, ‘불안’, ‘고민’, ‘아는 게 없음’, ‘자신감 없음’, ‘기술이 없음’으로 표현된다. 이는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이나 창업, 더 나아가 탈수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즉 ‘불확실한’ 현실을 보여준다.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텐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 초조. 근데 자활에 있다가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환경을 만들어줘야 만이 될 것 같아요. 일반직장처럼. 사회에 취직을 정부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관리. 환경조성.” (연구참여자8)

“다음에 뭘 해야 하나. 적금 타면 뭘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죠.” (연구참여자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 나가면.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제가 좀 자신감이 없어요.” (연구참여자10)

“뭔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막막한 거죠. 뭘 알아야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자립하는 데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도움받으면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 (연구참여자12)

“그때 가봐야지. 지금이야 뭐 끝난다는 생각은 그때 가서 나름대로 또. 끝나면은 이 사업을 종료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찾아봐야죠. 글썄 이 나이에 일자리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저기가 내려올지. 그때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니.” (연구참여자15)

③ 자활에 계속 의지하고 싶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단기반복참여자인 25세 청년인 연구참여자3은 지금 참여하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고, 여기에 계속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남은 참여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울 것이지만 구체적

이지 않다. 여기에서 계획은 막연한 계획으로 그저 해보면 좋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단은 제가 나가서 자립도 해야 되니까 여길 계속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를 계속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3)

“일단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을 잘 지킬지가 의문이죠.” (연구참여자3)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17개월, 16개월 남았는데. 그만 두게 되면 이 행복바이크 기준에 기술자. 저한테 기술 알려준 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기간이 저랑 비슷하게 끝나요 끝나기는. 그래서 자전거 그걸 한번 알아보거나 아니면 아직 빵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창업까지는 모르겠고. 그쪽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는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연구참여자4)

④ 공적이전이 있어 다행이나 일을 찾을 계획

단기반복참여자이면서 일반수급자인 연구참여자2는 자활사업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였다. 그 기간에 자신이 무엇을 할지 준비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 65세인 연구참여자2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기초연금을 받으니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일하는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다. 이는 기초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추가 소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기 끝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실업급여가 나올 거예요. 종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실업급여가 한 6개월 받을 동안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부족한 걸 채우고 하면서 그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은 그때 또 일을 하겠쎬. 그래서 실업급여가 한 6개월 받을 동안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부족한 걸 채우고 하면서 그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은 그때 또 일을 하겠쎬.” (연구참여자2)

“근데 그거는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알바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기초연금만 받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그만

큼 그거하고 다르잖아. 난 생계급여를 안 받고 기초연금만 받는 거야. 받고는 나는 활동을 하겠단거야...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것 같으면 자활을 그만두고 난 뒤에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에요.” (연구참여자2)

⑤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찾을 계획

연구참여자2의 상당수가 일반수급자로 자활사업이 종료되면 일반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참여자2가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자활 일자리와 비슷한 일자리가 있었으며 좋겠으나 자활근로에 비해 소득이 적을지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 자신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한다.

“다른 또 기간 되고 나가도 이런 좀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 또 있으면.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봐서.” (연구참여자4)

“하여튼 65세 되면은 지금 **(주공아파단지) 보면 65세 넘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을텐데. 건강이 되면 일년 단위로 연장을 해가지고 일을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근데 더 참여하면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너무 욕심부린다고. 그니까 한 1년. 한 66세. 한 1년 정도만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4)

“또 공공근로 신청해야죠. 먼저 시장님이 뭐 일 때문에 됐거든요. 다른 분이 되시고. 근데 그분이 자활에 오셔서 저도 희망통장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떨어졌어 내가. 공공근로 신청했는데...” (연구참여자7)

“그냥 먹고 놀 수는 없죠. 딱 데 일자리를 찾든지 해보겠죠. 알바식으로 일을 해보든지. 시니어같이 그런 사업단 또 얘기를 해보든지 ... 나이가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력만 되면은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좋지.”(연구참여자15)

“그러면 기회가 너무, 그 사람들을 박탈시키고 일어날 수 있는 그거를 아예 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저기로 남잖아요 수급으로. 여기 목적이 탈수급 시키려고 이거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회복지 저기지만 그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후에도 직업적인 걸 연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5)

⑥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음

40대 중반인 연구참여자4와 50대 중반인 연구참여자6은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면 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4는 쉬면서 할 일을 찾아볼 계획이다. 연구참여자5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며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하여 자활사업이 종료되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하겠지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생활을 위해 다시 일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만두거나 기간 만료돼서 끝나게 되면 한 1~2년은 그냥 쉬지 않을까.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아마 쉬고 싶을 거예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적어도 한 최소한 1년은. 뭔가는 구상은 하고는 있겠죠. 근데 아마 쉬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은 쉬려고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4)

“저는 5년 뒤에 저 같은 개인 사정은 애가 졸업하고 자리도 잡았으니까 5년 뒤에 저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부모님이 만약에 5년 뒤에도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돌보고 저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5년 뒤에도 아직은 일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다시 일을 하겠죠.” (연구참여자6)

⑦ 자활에 다시 돌아올 것 같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50대 중반의 연구참여자6은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 일을 찾아보겠지만, 일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힘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더라도 결국은 자활사업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저는 별다른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냥 월급이 적어도 여기서 그냥 편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잘리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평탄하게 그냥.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한 게 아니고 여차피 5년 되면 탈수급이 되는데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또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활에 그 나이 돼서 식당을 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사무직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다시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다시 참여할 수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상

못하는구나 하고 다른 걸 알아보겠쥬.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⑧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지원 필요

자활사업 참여 종료이후 취업이나 창업이 불확실하고, 종료 이후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자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상담, 취업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료 이후에도 어차피 사업단 나가든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기를 하더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쥬 저도. 그거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자활을 종료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끊어져요. 다 끝나요. 연결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거 하기도 벅차요. 종료하고도 1년 동안은 자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유예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 도움이 되쥬 그건.” (연구참여자5)

“그렇게 굳이 저기 한 거 없고. 팀장님들이 워낙에 알아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상담은) 아니 꼭 필요할 때만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상담 잘해주시고 그러는 거.” (연구참여자7)

“열심히 얘기 잘 해주시고 다른 분들하고 또 이런 상담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주고. 해주면 좋은 거지.” (연구참여자15)

(2) 자활사업 반복참여자 지원 방향

①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참여자들은 동료 참여자들을 통해 자활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보는 불확실하였고, 이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오해와 왜곡, 불신을 만들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 무엇을 할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네이버 말고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요. 뭘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저기 됐다. 이렇게 정책이 됐다.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책이 그렇다는데.” (연구참여자12)

“제가 알기론 안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하든 안 하든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연구참여자3)

② 자격증에 맞는 일자리 연계

장기반복참여자인 연구참여자11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노인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취업은 할 수 없었고, 자활사업(세척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하고 싶지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아쉽다고 한다. 정리수납사업단에 참여 중인 연구참여자12는 정리수납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 종료 후 해당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이게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이거를 따놓고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너무. 아들이 그러더라 고요. 엄마 거절도 아니고 15만 원 주고 엄마가 7시간을, 하루에 7시간 해서 40시간을 교육받고 따온 건데 왜 그게 계속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대준 거거든요, 비록 15만 원이지만... 전철 타고 아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면 저걸 하는 거구나 했는데 나는 계속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아쉬웠어.” (연구참여자13)

“그게(일자리 연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참여자12)

③ 연령별 맞춤형 취업준비지원 강화

20대 중반인 연구참여자3은 현재 CU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상품 관리나 장부 처리 등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건 만으로는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연 1회의 자격증 지원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지만, 추가 자격증 취득지원은 없었다고 한다.²⁾ 이에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한 지원: 1) 자산형성지원 통장 가입 및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료 적립, 2)교육비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진학준비 포함), 전문강사비, 자활연수원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참여자별 자립계획에 필요한 교육 (-개인별 교육비 지원금액은 3년간 총 220만원 한도에서 참여기간 동안 분할 사용하도록 사업 실시기관이 집행, 내일배움카드 우선 적용하며, 교육비 지원한도내에서 자부담 지원가능, -참여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비의 10%를 자기 부담하여야 함, 교육비 환급불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특히 연령에 맞는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자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지원이 더 필요하며, 이는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취업준비죠. 일단 일도 다양하게 해보니까 다방면으로. 저희 나이대에 특별히. 연령층을 두는데 특히 2~30대가 청년이니까. 청년층에 자격증을 더 지원해 주든지. 이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3)

④ 자활근로 내용의 다양화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터·도우미형)과 사업단 업종은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현 자활근로사업단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자활근로사업 내용에 대해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일에 맞춰 사업단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활근로사업단을 해체해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취업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면 사업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이동으로 해당 사업단에 충분히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단 여기 자활에서도 여러 가지 일 하니까 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봤자 IT, 컴퓨터 쪽이 발달하니까 AI 쪽 발달하니까 그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3)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사업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사업단 중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사업 계획서라도 쓰고 정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게 할 정도로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연구참여자9)

“일단 자활사업 측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매출이 굳이 안 나와도 자활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면은 구청 쪽에서는 그 사업을 접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참 배우고 있는데 접으래. 그러면 배웠던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출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단. 그런 사업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연구참여자11)

“근데 했는데 같은 사업단만 계속 만약에 세 번을 했다면 그건 조금 그랬을 거예요. 약간 의미가 없을 지도 몰랐을 거일지도 몰라요. 한 가지만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경험을 못 하고 그랬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세 군데 사업단을 해봤기 때문에. 길게 하고 나왔 으면 관찮을 것 같은데 짧게 하고 다시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한 사업단을 2년 했다가. 한 2년 이상 하고 나갔는데 다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시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면은 있겠죠.” (연구참여자4)

⑤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훈련

자활사업 참여자는 현재 받는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교육훈련 내용도 제한적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나라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연수 시켜주고. 면허증만 따놓고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운전하면 할 수 있지만 이게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연구참여자8)

“교육 같은 거보다 실전에서 내가 얻은 걸 교육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육 백 날 받아봤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현실적으로 딱 나갔을 땐 그렇게 못해요.” (연구참여자6)

“이게 배울 수 있는 거. 이거 만약에 이런 거 있다 뭐 배울 수 있는 거. 이렇게 그게 품목이 쪽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해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찾기도 없을 때도 있고.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 건지 하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중에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9)

⑥ 일자리로서 자활기업의 안정성

주거복지사업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8은 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자활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자활기업이 자활근로사업단보다 안정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기업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탈수급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은 일반노동시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자활기업도 중요한 취업경로라 할 수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처로서 자활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기업공동체로 나가서 안정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수급 탈피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8)

⑦ 자산형성 확대와 의료급여 수급 보장

자산형성 지원, 일명 통장사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참여자에게 자산형성의 거의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적지만 큰’ 자산형성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통장 가입 결정은 탈수급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통장 가입 자체가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의 경우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통장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다가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통장 가입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는 탈수급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탈수급 촉진효과가 크지만, 탈수급에 앞서 자산형성을 통한 생활의 안정과 투자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탈수급의 조건을 가구(개인) 여건에 따라 의료급여특례 혹은 의료급여 연장과 같은 조건의 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금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천만 원이라는 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구참여자1)

“인상됐으면. 지금 보면 완전히 진짜 되게 아껴야지. 물론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보통 8천 원, 9천 원. 돈 만 원 줘야 하는데. 원래 최저시급이랑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 시간을 일하면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최저시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사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단 건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더라고요. 못 벌어도 없는 돈에서 조금씩 밥 안 먹고. 밥 안 먹고도 적금 많이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벌면 버는 대로 다 먹고 써버리는 형님이 계시는데.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연구참여자1)

“병원가야죠. 어쩔 땐 돈 아까워서 병원도 잘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병원 한번 가면 돈도 많이 나오니까. 의료수급이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공짜로 병원비 싸게 하는 그게 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그러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돼서 가거든요. 병을 키운다고 해야 하나.” (연구참여자1)

⑧ 금융지원 연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통해 창업은 자활기업창업과 개인창업으로 구분된다. 연구 참여자5는 개인창업도 생각해보았지만 개인창업을 위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연구참여자7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참여 종료자의 주거안정과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사회적 금융지원기관을 통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창업) “도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도움을 주면 만약에 여기서 일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도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빠졌네요. 개인적으로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자활로 인해 일을 배워서 나가서 그 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5)

“저번에 여기서 (전세자금) 저소득대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쓰고 했는데 서류가 갔어요. 전화통화도 했거든요. 대출 저기. 만약에 얻으시면 그걸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런 거야 보내줄 수 있죠. 그랬는데 안 됐어.” (연구참여자7)

⑨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연계

자활사업 참여기간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 참여 종료 이후에는 복지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상실된다. 물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지만,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연계였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자활사업 종료 시점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건강교육이나 인문학교육, 인생교육, 의료후원, 언어치료 등에 욕구가 있었다.

“의료서비스 같은 게 만성질환에 대해서 연계됐으면 좋겠고. 일자리 같은 걸 확대해서 받았으면 좋겠고. 또 바라는 게 있으세요? 아 고독사. 고독사하지 않도록 1인 가구 케어.” (연구참여자1)

“그거를 갖다가 기꺼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요령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 절실함.” (연구참여자2)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금 치과 치료가요. 틀니도 7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 임플란트도 70세 이상. 평생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치과 치료도 치과 지원도 안과 지원도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 나이 제한을 둔다는 거.” (연구 참여자11)

“그게 지금까지 내가 자활에 있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언어치료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8)

〈표 IV-8〉 자활사업 반복참여자의 취·창업 전망과 지원방향

주제	하위범주	내용
취·창업과 탈수급 가능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능성이 줄어들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나이가 들어감, 일자리 획득 가능성 점차 감소, 받아주는 곳이 없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	취업이나 자립가능성 낮음, 막막함, 초조, 불안, 고민, 아는 게 없음, 자신감 없음, 기술이 없음, 불확실한 현실
	자활에 계속 의지하고 싶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면 나가야 함, 계획을 세우기는 함, 그렇지만 지킬 수는 없을 것임
	공적이전이 있어 다행이나 일이 잦을 계획	실업급여나 기초연금으로 당분간은 생계유지,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이 필요함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찾을 계획	종료 후 소득이 있는 일이 필요함,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사업과 같은 일자리 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음	자신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을 해야 할 것임
	자활에 다시 돌아올 것 같음	다른 일을 찾아보겠지만 찾을 가능성 낮음, 자활사업에 재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활사업 반복참여자 지원방향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지원 필요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담, 취업연계 지원 계속 필요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동료 참여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 자활사업 대한 오해와 불신, 왜곡 가능성, 정확한 정보 부재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 있음
	자격증에 맞는 일자리 연계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 안됨,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 연계 필요
	맞춤형 취업준비 지원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격증 취득지원 필요, 연령에 따라 욕구 다름, 청년층은 자격증 취득 집중 지원 필요
	자활근로 내용의 다양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 매출이 없는 사업단이라도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 잦은 사업단 이동은 기술습득에 부정적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훈련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
	일자리로서 자활기업의 안정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경로로서 자활기업의 성장과 안정성 필요
	자산형성지원 확대와 의료급여 보장	적지만 큰 기회, 탈수급 조건으로 자산형성 기회 감소, 의료급여 확장 방안 필요
	금융지원연계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창업지원 지원 필요, 사회적금융 활용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자활사업 참여 기간 및 종료 후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건강교육이나 인문학교육, 인생교육, 의료후원, 언어치료 등
------------	---

4. 소결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자활사업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15명의 연구참여자와 개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집단은 ‘단기반복참여자’ 7명, ‘장기반복참여자’ 5명, ‘장기지속참여자’ 3명의 3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지역 분포는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의 전국 7개 시·도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 과정에 대한 특성과 인식·느낌 등을 파악하였다. 1대1 개별 인터뷰 진행 후 수집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는 주제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반복장기 참여자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종료-재참여-장기화’의 흐름에서 신체·정신건강의 악화, 알코올 중독 등 참여자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일자리 사업단 참여를 통해 자활이 보장될 수는 없고, 심리·정서적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자활사업의 반복된 참여, 장기화 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 기술, 지식습득 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의 단계에 대한 참여자의 막연한 두려움, 자활사업 의존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반복 재참여 및 장기화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사업단 내 구성원 간 관계에서 갈등 및 의사소통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했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사업단 종결과 자활사업 반복참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사회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 실무자 차원의 자활사업 참여자 간 갈등·위기관리 대응 능력 역시 향상되어야 한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향상 및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확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단 배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업단 배치 과정에서 인간관계 등 비공식 의사결정의 영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활사업 게이트웨이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기반한 사업단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활근로사업의 다양화와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역량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과거 직업 경험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역사회 여건과 지역자활센터의 경험과 역량 등으로 모든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을지라도 자활지원계획에서 참여자들의 욕구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중심의 자활사업을 ‘참여자 맞춤형 자활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개인과 조직 차원의 노력을 포괄하는 자활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다. 먼저 자활사업 종료를 얼마 남지 않은 참여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종료 이후 다른 대안 없이 자활사업 재참여를 1순위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2회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가 반복되고, 참여 기간이 5년 이상 길어질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반복장기 참여자 대상의 전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IAP),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ISP) 등에서 반복장기 참여자에 대한 자활 사례관리 강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자의 과거 심리·정서적 문제 및 경험이 이들의 탈수급 및 자활의지 약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활사업 종료자에 대한 집중적인 자립지원상담과 계획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참여와 증지, 재참여, 종료를 다각적으로 경험한다. 자활사업 종료와 재참여 과정에서 집중적인 상담과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 준비 및 자립을 위한 집중사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활사업 참여 초기(게이트웨이 단계)에 집중사례관리가 이루어진 경향이 강한데, 이를 종료 준비 시점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참여 유형을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단기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단기반복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자활사업 종료 이후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의욕과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향후 반복된 자활사업 재참여와 장기화로 인한 무력감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의 반복과 장기화는 참여자의 무기력, 희망의 상실과 두려움의 증가, 탈수급 및 자활의지 감소, 실패감과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반복 및 장기지속 참여자의 경우 대체로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 만족하여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예: 2회 이상 반복 또는 5년 이상 장기참여자 대상 탈수급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

구참여자의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어려움 중 하나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큰 장벽이 되었다. 이는 참여자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결국 자활의지를 꺾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및 중요성, 자활사업의 긍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활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참여는 정보의 공유와 의견수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내용과 계획 등에는 참여자 사이의 정보 공유와 토론, 공동 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하고 자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홉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탈빈곤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적지만 나름대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탈수급’ 조건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욕구가 강한 참여자는 통장 가입 자체를 안 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중간에 해지하였다. 자산형성제도의 탈빈곤 촉진 효과를 높이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종잣돈 활용가능성 높이기 위한 탈수급 조건의 완화(예를 들면, 자산형성 종료자에 대한 의료급여특례나 의료급여 일정기간 연장)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장가입을 통한 모인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장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자활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창업역량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참여자의 일반노동시장 취업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기업이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경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활기업의 성장과 안정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활사업 재참여자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논의
2. 정책제언

V

자활사업 재참여자 << 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논의

1) 자활사업 재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자활정보시스템 DATA(2016년~2022년 월간 자료)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재참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재참여 패턴과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연구결과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정보시스템 DATA가 누적된 2016년-2022년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참여 패턴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45,539명) 중 반복단기참여유형(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미만이고 2회 이상의 참여주기) 13,267명(29.1%), 반복장기참여자(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2회상 참여주기), 2,041명(4.4%), 지속장기참여유형(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참여주기가 1회) 1,237명(2.7%), 일시단기참여유형(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 미만이고, 참여주기가 1회) 28,994명으로 63.6%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총 60개월이 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참여하다가 다시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29.1%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재참여 패턴에 있어서 일시단기참여유형 및 반복단기참여유형의 경우 대체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반복장기참여유형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으며, 지속장기참여유형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순으로 많았다. 전체 반복장기참여자의 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활사업 재참여유형별 참여자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반복단기참여유형의 경우, 첫 참여시 연령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성, 고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장기참여유형의 경우, 첫 참여시 연령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 중졸이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장기참여유형의 경우, 첫 참여시 연령은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 초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본의 현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학력은 전반적으로 일시단기 참여유형보다는 반복단기 > 반복장기 > 지속장기 참여유형으로 갈수록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 특성이 확인되었다. 예측과 달리 반복장기참여유형과 지속장기참여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초기 진입 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는 “양호”로 체크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활사업에서 60개월 이상 참여하는 참여자 중 3분의 1 정도는 초기 진입 당시 근로하기에 건강상태가 어려움이 없으며 노동시장 진입 대신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첫 진입시 경제적 상태 특성이 확인되었다. 반복단기참여유형의 경우 직업능력(자격증, 학력 등)의 어려움이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채무불이행상태의 비중, 경제적 빈곤상태의 어려움이 있는, 근로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응답된 참여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활사업 이전 취·창업경험을 살펴보면, 반복장기 참여유형의 경우 자활일자리 진입 전 취업경험이 있었던 참여자들의 비중이 22.3%에 불과하였으며, 지속장기 참여유형의 경우 취업 경험은 25.1%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졌다. 일시단기 참여유형과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게이트웨이 사업단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복장기 참여유형의 경우 마지막 자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었던 경우가 66.5%로 가장 높고, 시장진입형사업단이 24.9%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게이트웨이 4.1%, 시간제자활근로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장기 참여유형의 경우에도 마지막 자활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이었던 경우가 66.3%로 가장 높고, 시장진입형사업단이 27.1%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단이 2.5%, 시간제자활근로가 1.4%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참여 유형별 종단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상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복단기 참여자의 경우($\chi^2=35.69$, $p<.001$) 및 반복장기 참여

자의 경우($\chi^2=17.45$, $p<.05$) 자활 일자리를 처음 들어왔을 때의 신용상태보다 마지막으로 참여할 때의 신용상태가 다소 좋아졌다. 반복장기 참여자의 경우에도 첫 자활 일자리 당시에는 신용 양호 비율이 73.7%이고 신용 불량 비율이 15.8%이었으나 마지막 자활 일자리 참여 당시 신용 양호 비율은 78.2%, 신용 불량 비율은 12.4%로 신용상태가 향상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2) 자활사업 재참여 유형별 경험과 정책 인식 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활사업 재참여 경험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기 반복, 장기반복, 장기지속 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과정, 자활사업 종료 후 상황, 재참여하는 이유와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 반복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첫 진입 후 성공적 자활로 종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단 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사, 예상치 못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한 종결도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사업단 배치, 사업단 내의 갈등, 참여하고 있던 자활사업단의 종료 등 사업단 내에서 발생하는 이유로 성공적인 자활로 종결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사업의 특성상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자활근로 수행을 사업단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가 되는 것(단기참여-종결-단기참여-종결)으로 확인되었다.

장기반복, 지속참여자들의 경우, 자활사업 첫 진입 후 장기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성공적 자활을 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지속과 반복 참여하는 기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반복과 지속 참여자들은 앞서 살펴본 양적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자활근로가 일생의 첫 일자리 또는 가장 오랜 기간 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참여한 자활사업이 유일한 일자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활사업 기간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자산형성, 시장형사업단에서의 취·창업은 기회가 아닌 위기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재참여자들은 유형과 관계없이 자활사업 재참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경험 스스로의 자활역량과 의지를 높이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기 자활참여유형의 경우, 자활급여라는 정기적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경험하거나, 취·창업에 필요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자활사업단을 통해 학습하고, 탈수급에 대한 희망과 자활의지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지속 참여자들에게는 자활사업이 삶의 안정을 찾아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참여 이후 성공적 자활을 위한 정책 단기반복참여, 장기지속 및 반복참여 정책 요구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지속 및 반복참여자의 경우 현재 일반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고령층이면서 인적, 물적자본이 충분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종료된 이후 자신들의 삶의 계획이 없으며, 이후 탈수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른 공공일자리로의 연계 혹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단기반복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내에서 참여자들간의 주고 받는 정보를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확한 정보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제공해주길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데 그 교육들이 사업단과 연계되어, 취·창업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자활사업 내 재참여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 자활사업에서의 재참여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자활사업은 재참여에 대해 제도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자활사업 내 재참여자를 위한 제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재참여를 반복하는 경우는 사업단 내 갈등, 이사 등의 개인사로 인한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재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는 제도적 참여 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 환경의 물리적 한계를 배제하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적응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자활근로 사업 성과를 노동생산성 중심이 아닌 참여자 삶의 다양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사업이 설정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건불이행, 참여중단을 반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참여로 회복되다 또 제자리 걸음이 되는 반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재설계가 현시점에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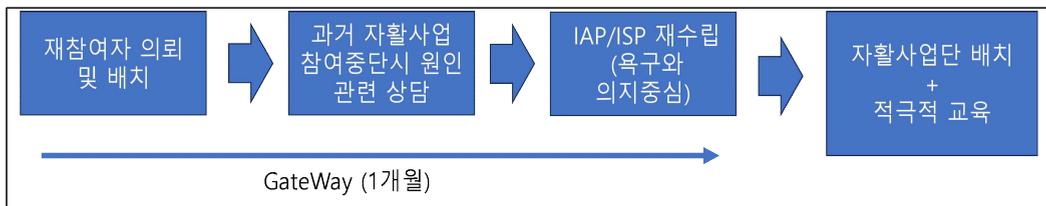
자활지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6년까지 사업단을 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는 5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17년에는 게이트웨이 사업단 참여 개월을 자활 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기간 제한 요건을 두었다.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자활사업에서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이며, 게이트웨이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지만, 취·창업 및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하는 경우에는 연속참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에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참여기간 제한을 통한 자활 촉진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다수의 자활사업 단기반복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제한기간에 가산되지 않는 게이트웨이 참여 후-종결-게이트웨이 재참여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 참여기간 제한이 자활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행에서 60개월 단위로 자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반복단기참여자는 여타 유형에 비해 경제적 및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근로의지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자활사업 내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 현재 반복단기참여(지난 7년간 자활사업 총 참여기간이 5년미만이고 2회 이상의 참여주기) 13,267명(29.1%)들이 게이트웨이 사업단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재참여자에게 대한 제도적 재구조화가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상생활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을 자활사업 제도 내에서 자활 근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자활사업 재참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 체계 개선 필요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대상은 모든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해 추가 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이다. 현행 프로세스에서 자활사업 재참여 시 신규참여자과 동일하게 의뢰배치되어, 초기상담을 거쳐 IAP와 ISP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반복(단기 및 장기)참여자의 종결 사유가 이어나 사업단 변경요청인 경우에도 게이트웨이 과정을 동일하

게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전의 자활사업 경험과, 자활실패의 원인이나 요인들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단 기간의 기간 간격이 적더라도 게이트웨이 과정을 다시 경험하면서 중도 탈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재참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 체계 마련(안)을 제안한다([그림 V-1] 참고). 재참여자의 경우 필요시 1개월로 게이트웨이 과정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게이트웨이 과정 시 과거 자활사업 참여중단 원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참여자의 과거 심리·정서적 문제 및 경험이 이들의 탈수급 및 자활의지 약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초기상담 과정에서 지원체계에 필요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후 초기상담 시 중점으로 이루어진 뒤 IAP/ISP 재수립 시 자활사업 참여 욕구와 의지를 기반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단에 배치 시 체계적으로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단 참여기간에는 적극적 직업교육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 기술 등 인적자원이 누적되어 자활의지를 키울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본 조사 결과 자활사업 종료 이후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의욕과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 V-1] 자활사업 재참여 GateWay 과정(안)



2) 자활사업 종결 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결과, 재참여자들의 종결 사유는 다양하다. 일시반복과 장기반복참여자들 중 성공적 자활(취·창업, 혹은 탈수급)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업단 내 갈등을 통한 미참여로 조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종결 이후 종결 사유를 고려한 적극적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공적 종결의 경우, 취·창업이나 탈수급이 예상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료준비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종료준비 상담 프로그램은 경력관리 전문상담과 잡코치, 정서적 상담, 재무설계 상담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안한다.

조건불이행이나 이사 등 개인사유로 종결하는 경우, 현재 자활사업 내에 사업 종결 이후 복지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자립지원상담과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활사업 참여 또는 다른 지역사회의 일자리,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활사업 종료자가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자활사업 종료자를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석 수당)을 마련함으로써, 자활사업 종결 이후 사후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결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자활센터는 종결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활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종결 후 재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이력 관리를 시군구-지역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복지부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결자에 대한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근로능력미약 장기참여자에 대한 연계 일자리 필요

본 연구 분석 결과, 전체 중 2.0%가 해당하는 장기반복 참여유형의 경우 지난 7년간 총 참여기간은 평균 69.38개월이었으며 참여주기는 평균 2.44회, 전체 중 1.5%가 해당하는 장기지속참여 유형의 경우 지난 7년간 총 참여기간은 평균 70.21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한 번 자활사업에 들어오면 중간에 쉬지 않고 약 5.85년간 지속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장기참여자들은 근로유지형 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사업단 종료나 사업기간 만료가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장기참여자들은 낮은 근로 의지와 장기수급의 만성화로 근로유지형에서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의 특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참여자 역시 첫 시점에서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사회서비스형이나 근로유지형 배치 후 사업단 종결로 자활 경로가 끝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기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탈수급 이후에 탈빈곤을 위한 역량 강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 사례관리, 역량 형성 등이 장기참여자들의 참여기간 내에 주어질 수 있도록 참여주민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내용과 형식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턴형, 사회공헌형(사회봉사형)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활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참여자를 자활사업에서 밀어내기 위험이 아닌 자활참여주민의 자활사업을 통해 개인의 자활이 성공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 자활 성공 지원방안 필요

재참여자의 경우 대체로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 만족하여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두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향이기보다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탈수급이나 취·창업을 선택할 제도적 유인이 없다는 점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의욕 및 자활 의지 향상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예: 2회 이상 반복 또는 5년 이상 장기참여자 대상 탈수급 인센티브 제공), 자활성공축하금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가 탈빈곤 효과를 제고하기 보다는, 되려 자산형성 통장을 가입하면, 수급이 중지되는 상황을 참여자들이 두려워 가입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만들 기회가 탈수급 조건이 되어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혹은 자산형성통장으로 모은 자산을 자활참여 종료 이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산을 소진한 뒤 자활사업에 재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산형성 제도의 탈빈곤 촉진 효과를 높이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을 위한 종잣돈 활용 가능성 높이기 위한 탈수급 조건의 완화(예를 들면, 자산형성 종료자에 대한 의료급여특례나 의료급여 일정기간 연장)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 모인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장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산형성 제도가 자활사업에 재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성공적 자활을 도모하는 성공적인 자활 성공의 인센티브로서 기능되어야 할 것이다.

5) 자활사업 재참여자에 대한 종사자 들에 관리 역량 강화 필요

자활사업을 다시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제도가 편하고, 좋아서라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활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탈수급이라면 자활사업 재참여자들은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한다는 것은 재참여를 통한 자활을 다시 도모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전달체계와 실무자들은 참여자들을 응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을 보이

지만, 일부 센터나 실무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자활사업의 재참여자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관점과 시선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이나 종사자 교육 시 참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 교육과 관점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사업 재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의 시작은 센터 내에서의 참여 정보의 공유와 의견수렴이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내용과 계획 등에는 참여자 사이의 정보 공유와 토론, 공동 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하고 자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센터 실무자 차원의 자활사업 참여자 간 갈등·위기관리 대응 능력 역시 향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재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이끌기 위해서 기존의 주요 급여에 대한 유예나 특례를 적극 안내하고 활용하여, 자활보다 나은 시장에서 안심하고 보루를 찾도록 유도하는 시도도 필요하며, 종사자들은 참여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신욱. 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263-286.
- 경승구·이용갑. 2018. 단기· 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 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인천광역시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679-690.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1), 82-112.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권민숙·윤영석·김근식.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5.
- 권용신·이준상. 2011.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질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23-49.
- 금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 김경휘. 20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7(2), 89-125.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교성·노혜진. 2009.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 185-212.
- 김교성·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3-35.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송치호·오지현·임미진. 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라·이현숙·이정희. 2019. 자활 게이트웨이과정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공공정책연구, 35(2), 145-168.
- 김소형·김경호. 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63-94.
- 김소형·김경호. 2020. 청년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Bourdieu 의 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학, 72(2), 323-348.
- 김영춘. 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G 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553-564.
- 김위정·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은하. 2008.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한국사회복지학, 60(4), 5-29.
- 김은하. 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239-268.
- 김자옥·유태균. 2018.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39-64.
- 김태완·이주미. 2017.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보건복지포럼, 254(0), 95-110.
- 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호원·양지윤·강지성. 2016. 「자활사업 심층 평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김환준.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42(4), 365-388.
- 김환준. 2013.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3), 183-206.
- 노대명·강신욱·이현주·임완섭·원일. 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경상북도: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노대명·원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 333-360.
- 도유희·이상록. 2013.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직효능감 결정요인: 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65-94.
- 박주영. 2021.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울산광역시 자활참여자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580-594.
- 박창균·이철인. 2011.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9(3), 149-186.
- 백학영·김경휘. 2013.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9-60.
- 백학영·조성은.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143-178.
- 백학영·조성은.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에 대한 태도와 탈수급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177-212.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자활사업 안내(1).
- 석상훈. 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25-44.
- 석상훈. 2011.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 97-114.
- 손능수·김경휘. 2016.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경상북도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6(2), 657-681.
- 손병돈. 2017. 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사회보장연구, 33(4), 163-184.
- 송승숙·장승옥. 2013. 빈곤여성가장의 자활의지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3, 1403-1424.
- 송인한·박장호·김리자. 201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57-474.
- 송인한·박장호·김리자. 2013. 준 고령층과 청·장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3(1), 183-197.
- 신영신. 20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의지와 인지된 고용 장벽이 경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15(2), 19-38.
- 유태균·김경휘. 2006.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39-70.
- 유태균·윤성원. 2012.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관한 탐색적 고찰.

- 사회복지정책, 39(1), 85-108.
- 이미라. 2012. 지역유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비교. 공공정책연구, 29(2), 123-138.
- 이병희. 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93-116.
- 이병희·이승렬·김주섭. 2006.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정재호. 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28-150.
- 이상아·최상미·오성은·고은새·양가람·김수완 (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석원·정희정. 2007.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 분석: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149-176.
- 이영애. 2011. 미국 노인들의 빈곤이행에 대한 삶의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 of Life Events on Poverty Transitions for the U.S. Elderly. 소비자학연구, 22(2). 61-87.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5-29.
- 이주환·김교성.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323-346.
- 이충희. 2019.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 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형하. 2015.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107-110.
- 임진섭. 2013. 중, 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자활 성과만족에 관한 연구: 개인 요인과 조직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검증. 한국사회정책, 20(4), 37-75.
- 임진섭·장용언·공정석. 2010.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이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3), 271-297.
- 임진섭·최장원·장용언. 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창업의지의 발생경로에 관한 연구:

-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27-55.
- 정수남. 2019. 탈빈곤 실천의 체계적 모순과 빈민의 하비투스: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0(1), 189-246.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정혜숙. 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67(4), 251-277.
- 조일원·강혜영.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279-321.
- 조준용. 2013.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 근거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13-324.
- 조준용. 2020. 자활참여자들의 탈수급 이후의 삶의 경험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 탈수급 경로와 빈곤경험 맥락에 따른 다섯가지 사례연구. 지역과 세계, 44(2), 141-174.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지은정. 2020. 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한국사회정책, 27(2), 125-162.
- 채구묵. 2015. 빈곤진입 영향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293-317.
- 최상미. 2021. 국민의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로서 국민청원 자료의 활용가능성: 청년 관련 청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1), 99-118.
- 최상미·홍영표·김한성. 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과성 평가-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 하승범·신원식. 2019. 농촌 자활사업의 방향성: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 사회복지정책, 46(3), 93-119.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Alcock, P. 2004.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395-416.

- Ashworth, K., Hill, M., and Walker, R. 1994. Patterns of childhood poverty: New challenges for polic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4), 658-680.
- Bane, M., and D. Ellwood.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
- Biewen, M. 2014. Poverty persistence and poverty dynamics. *IZA World of Labor*.
- Cellini, S. R., McKernan, S., and Ratcliffe, C. 2008. The dynamics of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data,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7(3), 577-605.
-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2004. *The Chronic Poverty Report 2004-2005*, Manchester: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Manchester.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uncan, G. J., B. Gustafsson, R. Hauser, G. Schmauss, H. Messinger, R. Muffels, B. Nolan, and Jean-Claude Ray. 1993. Poverty Dynamics in Eight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6, 215-234
- Edin, Kathryn., and Lein, Laura. 1997.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3-266.
- Fouarge, D., and Layte, R. 2005.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3), 407-426.
- Jo Bane, M., and Ellwood, D. T. 1983.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 OECD. 2001.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June.
- Secombe, K. 2000.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094-1113.
- Smith, N., and Middleton, S. 2007. A review of poverty dynamics research

in the UK. © Loughborough University.

Stevens, A. H. 1994.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Updating Bane and Ellwoo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34-37.

Stevens, A. H. 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557-588.